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 카를 바르트

제 22권 제3호(통권 172호)

2021년 3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 특집 / 44

### 제 10대 집행부 출범, 동심동덕(同心同德)

#### 45 화보

제 10대 회장·부회장 선출

제 8·9대 김홍길 회장, 경북도지사 감사패 수여

본회 첫 전무, 황엽 전무 퇴직

#### 48 정책대담 \_ 한우산업 정책과 미래를 말하다

#### 55 취임사 \_ 제 10대 회장 김삼주

#### 58 동행

제 10대 부회장 한양수

\_ 한우농가 하나로 규합 한우산업 숙원과제 해결 '앞장'

제 10대 부회장 이희대

\_ 화합·협력 바탕...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방안 마련 '최선'

#### 62 퇴임사 \_ 제 8·9대 회장 김홍길

## 한우마당 / 65

#### 66 우리한우이야기 \_ 한우와 한국인

#### 68 횡성사건 그후

횡성축협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 73 송아지 설사 예방, 양질의 초유로

#### 82 컨설팅을 통한 어린송아지 호흡기 관리방안

## 한우와 사람 / 89

#### 90 인물탐구 \_ 김충완 회원

협회사료 써봐유~. 송아지 '때깎'이 다르다니께~

#### 96 탐방 \_ 피드업

세계가 주목하는 '피드업' 발효대두박 「소이럽패스」

#### 100 인터뷰 \_ 횡성축협 조합원 자격 재획득한 원광희 씨

## 정보마당 / 103

#### 104 2월 한우동향분석

#### 115 백문백답 한우사육

#### 118 한우 비육우 사료급여 시, 축사 내 미세먼지 농도변화

#### 120 우량송아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

#### 124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 소식·알림마당 / 130

특집

# 한우공감 韓牛共感 동심동덕 同心同德

본회 제10대 회장에 김삼주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선출 부회장에는 기호 1번 한양수 후보와 기호 3번 이희대 후보(기호순)가 당선됐다. 이번 전국한우협회장 선거에는 대의원 284명 중 265명이 투표에 참여해 9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중 단독 입후보한 김삼주 회장 후보자는 195표(73.5%)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C O N G R A T U L A T I O N

大吉

## 2021년도 전국한우협회 대의원 정기총회 제 10대 회장·부회장 당선증 교부식



### 제 10대 회장·부회장 선출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문)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고, 김삼주 회장 당선인과 한양수·이희대 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신임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당선 직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가짐으로 전국의 10만 한우농가들과 함께 한우산업의 안정과 협회 발전을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 또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한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장시켜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양수·이희대 두 부회장은 “높은 투표율을 보니 한우산업이 처한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해 달라는 농가들의 메시지로 느껴진다”면서 “김삼주 회장을 도와 한우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같은 걸음을 걷겠다”고 밝혔다. 제 10대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로 시작됐다.





## 제 9대 김홍길 회장, 경북도지사 감사패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3월 5일 접견실에서 김홍길 제 9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홍길 전임 회장은 임기동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사회공헌과 상생협력의 가치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본회 첫 전무, 황엽 전무 퇴직

본회는 지난 2월 25일 황엽 전무의 송별식을 진행했다. 황엽 전무는 본회 첫 전무로 제 9대 김홍길 회장과 6년 간 발을 맞춰 왔다. 황엽 전무는 축협중앙회 기획조정실장,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전무를 거쳐 지난 2015년 5월 본회 전무로 선임됐다.

송별식에서 황엽 전무는 “전국한우협회에서 농가를 위해 일한 6년은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다”라면서도 “이 일에선 퇴직하지만,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정책대담

# 한우산업 정책과 미래를 말하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0대 회장 선출에 앞서 농가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책대담을 마련했다. 지난 2월 19일 열렸던 정책대담은 김삼주 회장의 한우산업 정책과 한우협회 발전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었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진행자로 나서 김삼주 회장을 집중 탐구했다.

대담진행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



## 한우산업 안정화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농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한우협회 제 10대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김삼주 회장이 그리는 한우협회와 한우산업의 미래를 대담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우산업 안정화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한우가격의 고공행진으로 호황기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김삼주 회장** 2020년 한우사육두수가 320만 두, 가임암소가 155만두를 넘어섰습니다. 2020년 도축두수는 76만 3천두로 전망치보다 감소해 작년 한우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하두수가 2021년으로 이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물량이 도축될 경우 한우가격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한우수급조절을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미경산우 사업은 여러 기준으로 많은 농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현행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미경산우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가들도 수급상황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사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가격 인상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김삼주 회장** 밀소와 사료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WTO, FTA등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만 외쳤지, 실질적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사료비 문제는 농가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우협회에서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사료, 사협사료에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료값이 인상되는 시기인 만큼, 한우협회 전용 사료 확산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한우가격안정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이야기 해봤습니다. 한우산업 안정화는 곧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인데요, 한우산업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김삼주 회장**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 협회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재점검 하겠습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조건 중 가임암소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보전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협회는 비육우경영안정제를 통한 농가 소득기반 안정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육우경영안정화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축산환경규제

**진행자** 최근 농가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농가들의 생존권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요?

**김삼주 회장** 외부 환경을 보면 탄소중립 등 전세계가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농가 현실에 비춰 너무 급격하고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우 산업도 경축순환에 주력하여 한우산업도 환경에 적응할 태세 갖춰야 합니다. 최근 환경관련 입법 추진 심각한 상황을 보면 한우산업에 심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축산악취방지법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공조하여 농가들의 사육여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득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한우인도 환경문제에 소홀해서도 안됩니다. 환경에 부담주지 않으면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퇴비부숙도 관련

**진행자**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산현장에 퇴비부숙도가 곧 시행됩니다. 아직 현장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농가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비부숙도 관련, 추가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실지요?

**김삼주 회장** 퇴비부숙도 관련해서 퇴비장에 대한 견해를 문제가 해소되지 못해서 농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퇴비장에 대한 견해가 한시적으로라도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월 25일 시행되는데도 농가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1년 유예를 하면서 공동퇴비장 신설, 마을형 퇴비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농가에게만 퇴비부숙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정부와 국회의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축산진출

**진행자** 다음은 대기업 축산진출 문제입니다. 한우도 위탁사육이 늘고 있다는 지역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특히 농협의 대규모 생축장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대자본의 축산사육진출에 대해 어떻게 차단하고 농가들을 보호할 것인지요?

**김삼주 회장** 기업자본이 중심이 된 농업법인의 직영농장, 농축협의 생축장, 협동조합형 위탁사육에 반대합니다. 사육은 농민이, 기업과 농축협은 사료 등 원자재의 생산과 유통, 도축과 육가공, 축산물 유통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산업은 자신의 농장에 직접 투자하고, 위험도 감수하는 건전한 사육주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위탁사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건전한 사육주체 중심의 한우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이나 조합의 생축장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주어지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면세유, 농업용 전기의 이용 등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해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 협회 운영방안

**진행자** 다음은 협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협회가 농가권익 보호를 위해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동안 협회 운영전략이 있다면?

**김삼주 회장** 협회는 한우농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집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회 회의를 전국 순회로 개최하여 이사회 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도지회, 시군지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도지회 및 시군지부 정기 방문 및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간 담회를 열겠습니다.

갈수록 축산업 여건이 세분화, 전문화 되는 상황에서 축산, 환경, 농경제, 유통, 소비분야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분과를 활성화하여 차세대 한우 지도자를 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스로 발전하는 협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자조금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한우자

조금이 내부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협회는 생산자 단체로서 한우농가들이 거출하는 소중한 우리의 한우자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협회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대의원 사전 질의 접수 **가축재해보험**

**진행자** 대담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협회에서 사전 질문을 접수받았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이며, 대의원께서 직접 질문한 내용이니 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남도지회 신건호 대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수해로 축사파손과 침수로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한우농가는 보험가입도 저조하고 복구비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요?

**김삼주 회장** 한우는 양계, 양돈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습니다. 또, 농장단위로 소 이력제의 70% 이상 가입해야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합니다.

낮은 가입률로 보험료가 높고, 보험료가 높아서 가입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축재해보험 관련 소



“  
현장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해  
바뀔 수 있도록  
”

개체별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또 성별 분리가입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 농가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재난 복구비용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송아지 입식비용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데 유관기관과 공조해 현실화하겠습니다.

#### 대의원 사전 질의 접수 **전농가 회원화**

**진행자** 두 번째 질문은 강진군 윤순성 대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소를 1마리 도축할 때 자조금을 2만원 거출하고 있습니다. 예전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중 3천원을 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했었는데 이를 실행할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삼주 회장** 자조금 2만원 중 3천원을 협회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5만명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5만명 서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면서 자조금을 생산자단체가 사용하는 사례도 검토하여 미국처럼 협회가 정당하게 자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대의원 사전 질의 접수 **적정두수 조절**

**진행자** 세 번째 질문은 보성군 노정재 대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김삼주 후보자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가는 축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 한우 적정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삼주 회장** 축산의 정부정책 소외 경향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한우산업의 현장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문제나 근축혈, 수의사처방제 등 농가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끼시는 부분의 현장 목소리를 온전히 전달해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급조절 대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활용하여 앞으로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조절은 무엇보다 농가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한우산업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대의원 사전 질의 접수 **한우산업 안정화 추진**

**진행자** 네 번째 질문은 영주시 송무찬 대의원에서 해주셨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회장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삼주 회장** 도축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회장에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제일 먼저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한우산업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개정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통해 개정 발표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협회의 요구와 정부 입장 간 괴리가 큼니다. 국회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he is... **김삼주 회장**

제일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영주축산업협동조합 이사, 전국한우협회 영주시지부 이사·영주시지부장·경상북도 지회장을 역임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과 관리위원,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우제류),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경상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위원,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위원, 2020 경북 축산단체협의회장, 경북 한우육성협의회 위원, 다시뛰자 경북 범도민 추진위원회 위원,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위원, 경상북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영주시장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경북 농업인 대상(축산부분)을 받았다.



제 10대 회장 김삼주

취 임 사

# 한우인의 권익신장과 한우산업 발전 위해 ‘최선’

제 10대 회장

김  
삼  
주

3월 1일부터 전국한우협회 제 10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 김삼주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 한우농가를 위해 우직한 한 마리의 소가 되겠다는 다짐을 믿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취임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신 한우농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전국 한우농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이·취임식이 진행되진 않았습디만, 이렇게 우리 협회 소식지 ‘한우마당’을 통해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난 6년 동안 열정과 헌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 오신 김홍길 회장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전국한우협회는 1999년 축산생산자 단체로서 가장 뒤늦게 출범했지만, 한우산업을 지키겠다는 모두의 강한 일념 하나로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기개는 생산자 단체로서는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했고 축산업계의 만형, 농업농촌의 자존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2000년대 시장개방 그리고 현재 축산환경 문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호주산 수입생우 반대운동,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법제화, 한우자조금의 성공적 도입까지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모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이뤄낸 역사와 저력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우농가 여러분!  
저 김삼주는 한우인의 권익신장과 한우산

업의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현장감 있는 소통과 단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옥(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협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조언에 귀 기울이며 화합과 현실적 소통으로 신뢰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둘째, 한우산업 안정화입니다.** 수급조절사업과 생산비 절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사육 안정화를 꾀하고, 한우의 높은 가치를 활용하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발굴·선도하여 한우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조성한 한우자조금에 대해 실제 주인인 한우농가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한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지원조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우리 한우인들에게 닥친 최대 현안인 축산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숙명과도 같은 난제입니다. 한우농가들을 옥죄고 있는 환경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

지키지 못할 규제,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에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자들과 임직원들의 소양교육,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우농가 여러분!  
한우는 5천년을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우리의 유산이자 생업의 발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농업의 핵심 산업입니다. 저는 영주시지부장, 경북도지회장, 한우자조금 대의원 등 한우산업 지도자로 걸어오면서 불안정한 미래를 안정시켜 후계에 물려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책임감은 이제 사명감이 됐습니다. 올해 신축년 한우의 해는 소의 재평가를 통해 소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민족사의 시작과 함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가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왔고 오늘날 최고급 단백질 공급원으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는 경축순환농업의 표본으로 가장 친환경적이며, 사람이 먹지 못하는



제 10대 회장 김삼주

환경부산물들을 먹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소로 환원하는 고마운 존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우리 한우협회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튼튼한 뿌리로 영속할 수 있도록 뚝심있는 걸음걸이로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회장 취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우산업 건설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동고동락하며 한우산업의 번영을 위해 같이 걸읍시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우농가 하나로 규합 한우산업 숙원과제 해결 ‘앞장’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한우산업의 현안을 앞장서  
해결해 달라는 한우인들의 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10대 부회장 한 양 수



한양수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한우인들의 단합과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과거의 한우협회 임원선거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선거구도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한우농가들간 분열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비대면 문자 투표 방식임에도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것은 한우농가 모두를 하나로 뭉쳐 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통념이 있어 선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활짝 피울 수 있지만 분열과 반목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많았던 만큼 그간 협회 역사에서도 적지 않은 상처가 있어 안타까웠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한 부회장은 “새로운 임원진을 중심으로 전국의 한우농가들을 하나로 규합해 산업의 숙원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한우산업의 새로운 발

전 계획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먼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장 그의 사육터전인 정읍만 놓고 봐도 환경문제가 갈수록 ‘규제일변도’로 급변하고 있어 농가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패키지 3법’을 발의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부회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경우도 3월 25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위반농가에 대한 처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장의 많은 농가들이 걱정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퇴비 부숙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어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한우가격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된 높은 수준의 한우가격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만나 추가 수요 등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선 공급과 수요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동참에 한우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화합·협력 바탕...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방안 마련 '최선'

제10대 부회장 이희대



이희대 부회장은 경남도지회 사무국장과 도지 회장에 이어 중앙회 이사와 한우자조금관리위 원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그동안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굵직한 요직을 거치며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이다.

제10대 한우협회 임원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출 마해 당선된 이 부회장 또한 '화합과 협력'을 한우협회와 한우산업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 자 기본 요소로 꼽았다.

이희대 부회장은 “그동안 수입개방의 거센 파 고와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와 산 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풀뿌리वाद도 같았던 전국의 한 우농가들이 ‘한우협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 나로 뭉쳤기 때문”이라면서 “한우산업의 다가 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반목의 불씨들을 모두 잠재우고 하나로 뭉칠 때만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신임 회장을 도와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시급한 과제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한우가격 안정’을 꼽았다.

한우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가임 암소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한우업계의 우려 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kg당 1만9천~2만원을 넘는 한우가격 고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격 하락 에 대한 한우농가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 되지 않 고는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만큼 공급부문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협회가 추 진하고 있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등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의 농가 동참을 최대한 이 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선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우산업’, ‘국민속의 한우 산업’으로 거듭나야만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년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례와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 여기에 각종 환경규제 관련 법 개정 움직임까지 분뇨와 냄새 해결 없이는 한우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한우고기 생산은 물론 ‘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한우산업’이 아니고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한우산 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있도록 환경부문의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협회를 중심으로 결속해 더 큰 힘을 발휘합시다



제 8·9대 회장 김 홍 길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회장님’으로 불린 지난 6년간의 여정을 뒤로 하고 다시 평범한 농민으로 돌아 갑니다. 한우농가와 축산인, 나아가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농민대표로 후회 없는 임기를 마쳤다는 소회를 담아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전국한우협회장을 지낸 지난 6년은 제 일생에서 다시 경험하지 못할 영광과 보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묵묵히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한우농가 여러분들과 협회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전후방산업이 함께 상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우농가의 권익을 우선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이 결집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한우농가 들을 위한 길이다.”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농가수익증대부터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한우 부산물을 공개 입찰제로 전환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높였습니다. 최고기등급제는 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편하였습니다. 농협을 강하게 밀어붙여 사료 가격을 인하하고 동결시켰습니다.

또, 도축 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저지시키고, 정부의 방역세, 도축세 신설도 폐기시켰습 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김영란법 개정도 이뤄냈습니다. 지속가능한 항구적 한우산업을 위한 미 래의 고민도 진전시켰습니다.

한우산업 중장기 전략과 비전 수립을 위해 한우정책연구소를 출범했습니다. 연구소를 중 심으로 최근 농가 선택권, 자율권을 유린한 횡성축협 사건에 뛰어들어 우리 한우농가들 의 권익을 지키고 농업계 역사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특위에 직접 참여해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기업의 축산업 생산 참여 제한과 위탁사육 및 농축협 생축장 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기틀이 정립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우농가 여러분,

우리가 한우산업 발전과 번영을 위해 쉽 없이 달리면서 써 내려간 역사적 순간들은 후대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은 설날과 추석에 잇는 하나의 민속명절로 승화시키고자 도심 한가운데서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열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우로 행복할 수 있는 날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정착시키고자 했지만, 갑 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와 비대면 트렌드로 더 이상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우사랑상품권이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선도했고 우리의 도전과 성공이 타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 국면에 따른 양적 성장을 뒷받침 하고자 NS홈쇼핑, GS, SK 등 유통기업들과 소비활성화 업무협약을 계속 추진하면서 소비저변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유통기업들이 생산자단체와 직접 맞손을 잡겠다고 찾는 것은 지금까지 일궈온 우리 한우 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임기내 한우협회를 강력한 운동체로 세상에 각인시킨 농협적폐청산 운동은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라는 우리 고유의 칭호를 재확인 시켰고, 협회의 뿌리 깊은 운동체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승고한 투쟁 전면에 나서주신 농가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농가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새로이 구성되는 임원진에게 무한한 신임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제 8·9대 회장

김 홍 길

# 한우 마당

1

우리한우이야기  
한우와 한국인

2

횡성사건 그후  
횡성축협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3

이경진 수의사의 한우명품만들기  
"송아지설사 예방, 양질의 초유로"

4

컨설팅  
번식문제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한우와 한국인

## 한우는 8덕(德)을 갖춘 동물

우리나라 선조들과 삶을 함께해 온 한우에게는 여덟가지 덕(8德)을 갖추고 있는 동물로서 칭송하였다. 그 덕을 입고 살아왔기에 황희 정승이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하느냐는 질문에 갓속말로 대답하는 농부에게서 삶의 철학을 배웠다는 이야기부터 한말의 지사 황헌이 소를 대놓고 꾸짖는 농부를 불러 잘못을 타 일렀다는 이야기까지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그 여덟가지 덕목을 알아본다.

### 1. 서두르지 않고 꾸준한 성실함이다.

선조때 정승 정탁이 스승이었던 조식을 떠나올 때 인사를 올리자, 스승이 '자네를 위해 뒤켠에 소를 한마리 매어 놓았으니 상경할 때 몰고 가게'라 해서 뒷켠에 가보니 소를 찾을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자, 다시 스승이 말하기를 '자네는 말과 의기가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워 말과 같으니, 말은 빨리 가지만 넘어지기 쉬운 법, 더디고 꾸준하며 순한 것을 참작해야 능히 멀리 갈 수 있는 것이라 내가 소를 준다고 하였네.'라고 했다고 한다. 이 스승이 준 '바음의 소'를 평생 타고 살았던 정탁은 벼슬이 정승까지 오르고 관직을 무난히 마쳤다고 한다.

### 2. 돌발이건 진창이건 가리지도, 피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는 것이다.

한번 뜻을 정하고 이를 실행할 때는 나타나는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한 방향으로 매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일컫는 말이다.

### 3. 자신이 하는 일을 되새겨 그 잘못을 반성하며 되새김하는 것이라 했다.

소는 먹이를 먹은 다음 조용히 자기 자리에 되돌아와 반추하며 되씹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를 반성이라는 덕목으로 생각하였다.

### 4. 자애로움인데, 언덕위의 어미소와 송아지를 보고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미 소가 송아지를 사랑하여 혀로 핥아 준다는 뜻으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지독지애란 4자성어나 "파리며 달아나라. 내 꼬리에 맞아죽지는 말아라"하며 우두커니 서서 시름없이 꼬리를 휘둘러 대는 모양을 보고 인자하다고 말한 춘원 이광수도 이 사덕(四德)을 말함이지 않겠는가?

### 5. 재물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소는 농가 제일의 재산목록으로 여겼으며, 풍수지리적으로도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의 지형에서는 자손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꿈에 소를 보면 재산을 불러 줄 꿈이라고 해몽하기도 한다.

### 6. 불행이나 병을 부르는 귀신을 막아준다 했다.

쇠뺨다귀를 문전에 걸면 악귀가 집에 못 들어온다 하였으며, 소 코뚜레를 문전에 걸어도 귀신이 무서워 도망친다 하였다.

### 7. 잡다한 세상사에 초연(超然)하게 유유자적 함이다.

무위자연을 표현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동물이 소인데, 도교에서나 선인들이 소를 타고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8. 마지막은 초월자의 과정을 인간에 교시(敎示) 하는 것이다.

속세로부터 선(禪)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십우도(十牛圖)가 그 대표 일 것이며, 소를 찾아 나섰다가 소를 길들여 타고 돌아오는 동안 소를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려 초월의 본능으로 돌아간다는 선불교의 반본환원(返本還元) 역시 소와 함께하는 이야기다. 한국 조계종의 개조인 지눌법사의 호가 목우자(牧牛子)요, 만해 한용운의 호는 심우(尊牛)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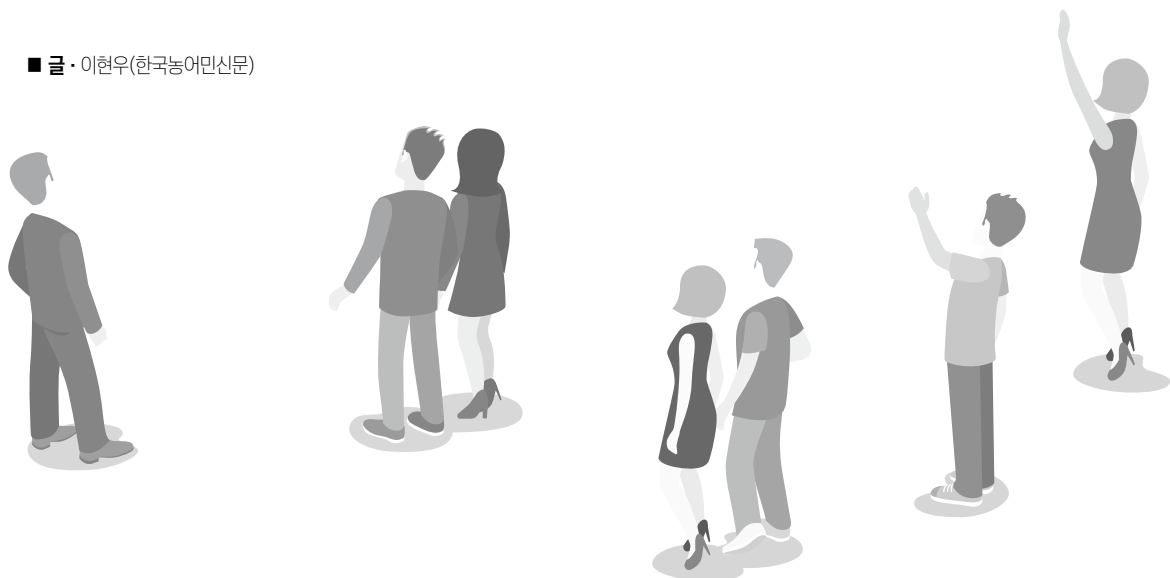
출처 : 고금육만들기(원유석 외)



# 횡성축협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횡성축협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 글 · 이현우(한국농어민신문)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횡성축협 조합원 20명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료와 출하사업 같은 축협의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 조합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20명의 농민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일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명할 수 없게 됐다. 전국한우협회는 ‘머슴 채용했더니 주인 쫓아 내려다 달미! 횡성축협 횡포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13명의 조합원이자 농민들이 농협과 축협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지 횡성축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 또는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농민들이 힘없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장이라는 권력 하에 조합에 쓴 소리를 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을 지지한 조합원들에게 강경 대응했던 조합장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지난해 10월,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횡성축협 이·감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월 11일 “1심과 같이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해 축산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화 촉구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민을 축협의 경합 대상으로 보고 제명동의 탄원에 서명하는 등 횡성축협 횡포에 동조한 전국 137개 축협 조합장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농민들의 심판과 처단이 뒤따를 것”이라며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엄경익 조합장은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농민의 엄중한 경고를 수용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농·축협이 주요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조합에 쓴 소리를 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각종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일선 농·축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사실 횡성축협 문제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로 교체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작했다”며 “농협은 1961년 출범해 약 6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축산업은 크게 발전했고 변했는데 농·축협은 바뀌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농민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해야 하는 등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 농협의 역할 재정립 필요한 시점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축협들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축협들이 앞으로 조합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조합원 자격을 다시 얻은 횡성축협 조합원, 원광희 씨는 “매년 쇠고기 수입량은 늘고 있고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한우가격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축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조합에서 제명됐던 농민들은 홀로 법적 다툼을 진행해 패소하거나 기나긴 소송

기간으로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힘없는 농민들이 의기투합해 농업계 최대 조직인 농·축협과의 싸움에서 이긴 점은 농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희망을 되찾은 역사적인 사례로 꼽힐 만큼 큰 의미가 있다.

## 용기의 원천, 전국한우협회

### 농민단체 존재의 중요성 일깨워

원광희 조합원은 “힘없는 농민들을 위해 전국한우협회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 단체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주인인 우리가 머슴에게 당할 수 없다. 전국에서 일선 조합들과 싸우는 농민들은 절대 기죽지 말고 한우협회 같은 단체들과 함께 싸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동옥 횡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나약한 힘으로 싸울 때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전국한우협회에서 (이번 소송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우협회의 도움으로 조합원들이 용기를 얻어 승소할 수 있게 됐다”며 “농민들이 외롭게 싸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품목조합 활성화도 기대될 수 있다. 한우업계 관계자는 “지역축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품목조합이 결성된다”며 “품목조합 때문에 일선 축협들의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협동조합 전문가에게 묻다



이호중 상임이사  
(농어업정책포럼)

### 제2의 황성축협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은?

협동조합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황성축협 사례 같은 부당한 조합원 제명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인식 하에 농협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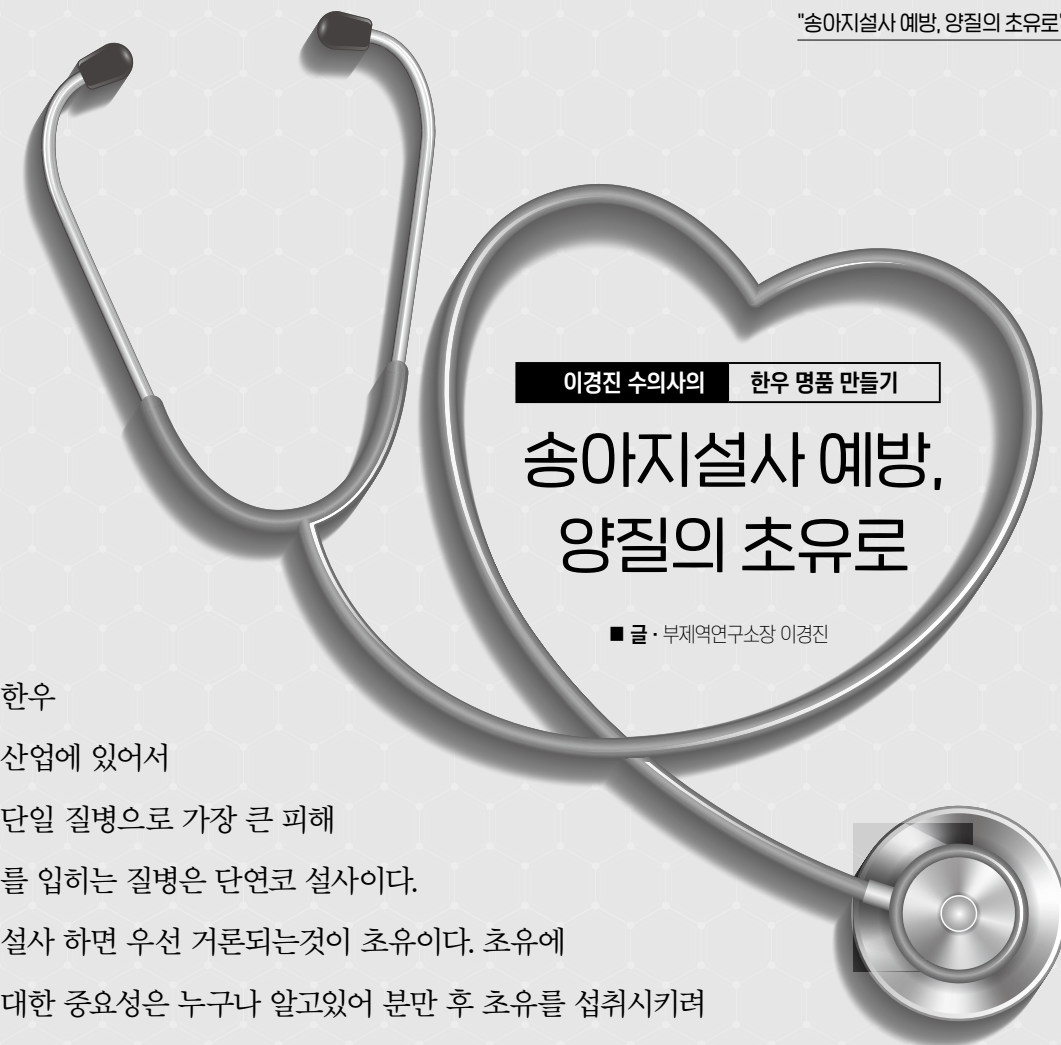
이번 황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건과 관련 이동욱 황성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황성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황성한우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도 “황성축협 같은 사례는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 이런 문제는 일선 농·축협과 품목 조합 간 사업이 경합되면서 시작됐다”면서 “예를 들어 한우조합이 설립할 때 농협 시·군지부장과 조합장들이 한우조합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대출 중단 등 압력을 넣어 조합 설립 총회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황성축협 건도 지역축협이 제 역할을 못해서 생산자들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든 것”이라며 “황성한우협동조합 같은 품목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농협이 생산자 중심의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합원들 스스로 조합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동시에 농협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이호중 상임이사는 “지역의 협동조합 조직들이 잘 성장하고 농협이 이들을 포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등 형님 역할을 하는 것이 농협에게도 사업 확장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협동조직과 연대하고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이사장은 “품목 조합 같은 단체들이 생긴다면 농민들이 여러 조합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이라며 “농협이 힘의 논리로 조합원을 함부로 제명할 것이 아니라 품목 조합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잘해줄 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은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조합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돼 결국 많은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진 수의사의 한우 명품 만들기

## 송아지설사 예방, 양질의 초유로

■ 글 · 부제역연구소장 이경진

한우

산업에 있어서

단일 질병으로 가장 큰 피해

를 입히는 질병은 단연코 설사이다.

설사 하면 우선 거론되는것이 초유이다. 초유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있어 분만 후 초유를 섭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있는 초유는 초유의 능력으로 보면

얼마만큼 만족하는가를 생각해보는 농가는 극히 드물다. 현재 한우농가의 초유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20점을 더 줄 수 없다. 초유의 공급이 전무하다면 치사율은 정상공

급된 경우보다 60%가 높다. 최고 항체가를 유지하는 초유를 만들어야 한다. 번식농장에

서 송아지가 혀내돌림 혹은 파이프를 핥는 경우는 60~70%에 달한다. 주원인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결핍이다. 항체의 주요생성 원소가 비타민 미네랄 이다.

설사는 일반적으로 식이성 설사와 감염성 설사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다. 예방법은 내목

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체에 대한 예방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미소인 모체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면 예방접종을 두번 한다 하더라도 항체

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료를 줄 때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레싱 해주어 어미소에 예방 접종한 항체가 초유를 통하여 송아



지에게 전달하여야 전염성 설사를 우선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탈수의 전해질 공급방법은 혈관주사와 경구용 전해질 공급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탈수 교정 후에는 오줌으로 배설되어 투여 후에 발생하는 탈수를 예방할 수가 없다. 생리식염수에 고농축 전해질을 혼합하여 피하주사로 목과 견갑골 왼쪽에 투여하면 송아지는 필요한 전해질만 흡수한 후 피하에 저장했다가 다음 설사하기 시작하면 저장된 전해질 수액을 활용한다.

초유 이후 면역은 흉선의 면역이다. 흉선의 목 양쪽에 분포하는 면역조직은 생후 15일부터 10개월까지 면역기능을 담당한다. 어미소는 분만 두달 전부터 임신된 태

#### 피하주사 놓는 방법



아를 생시체중의 70%까지 성장시킨다. 이때 사료를 증감하는 것을 '돋아 먹이기' 라고 한다.

돋아먹이기가 충분히 잘 된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토실토실하며 흉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돋아먹이기가 부족했

던 송아지는 흉선의 발달이 미숙해 전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된다.

분만 전 태아의 발달에 따른 어미의 돋아먹이기 사료량은 평상시 투여량의 30~40%를 증감하되 기온과 모체의 신체충실지수, 유전성향 등 상황을 고려해 증감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송아지가 마르게 태어나면 설사 때문에 힘들고, 통통하게 태어나면 전염병을 모르고 자란다.'는 말을 한다. 흉선의 발달이 송아지의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전염성 질환에 최고의 저항성을 갖기 때문이다. 어미 소의 신체충실지수가 4.5를 만점으로 할때 3.5 이상인 경우에는 돋아 먹이기를 고려해야 한다. 비육중인 암소는 태아를 키우기 보다는 복강 내의 지방축적이 자궁의 성장을 방해한다. 돋아 먹이기가 오히려 저체중의 태아를 만든다.

송아지는 출생 후 초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전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송아지의 출생 후 설사를 비롯한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초유 급여 및 위생적인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보급된 초유 대용 제품도 가능한 12시간 이내에 투여하는 것이 흡수를 최대화 한다. 만일 초유를 못 먹었을 때는 인공 초유 복용량을 3~5배로 늘려 주는 것이 현명하다.

항체 함유율이 높은 양질의 초유는 잘 익은 수박 정도로 달다. 맛이 없는 초유는 항체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초유가 아니다. 초유는 분만 후 3일 이내의 젖으로 송아지 건강에 중요한 면역글로불린(면역항체)과 다량의 비타민 A 를 함유하고 있다. 양질의 초유를 섭취한 송아지는 생후 15일 이내에 설사 혹은 호흡기 질병 발생이 없다. 반대로 15일 이내에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이 발생하는 농장은 초유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초유 내의 면역 물질은 위 내의 용모가 발달하기 이전이어야만 흡수 능력이 있다. 이 시기는 분만 후 36시간 이내이다. 초유의 항체가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생후 10시간 이내에 최대한 많은 초유를 먹여야 한다. 폐사율을 보면 1~2kg 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생후 6개월 동안 폐사율이 15.3%로 4~5kg 을 급여한 송아지보다 2배 이상 폐사율이 높아 과식에 의한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의 초유를 급여하는 것이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는 방법이다.

설사로 인한 탈수가 진행된다면 피하에 2천~4천cc의 생리식염수와 고농축 전해질 500cc를 네곳에 주사하여 저장된 전해질을 흡수하여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설사 치료 후 피하에 남아있던 수액은 가슴 부위와 앞다리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나 2~3일 후에는 흡

수되어 사라진다. 농가에서는 송아지 설사 치료를 할 경우 링거액을 하루에 한번만 투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설사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탈수가 심하므로 하루 2회 또는 3회 링거액을 투여하는 것이 송



아지 설사로부터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 설사를 유발한 송아지가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바이러스, 즉 로타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며 농장 환경 자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거나 초유의 항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농가에서는 설사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원인을 규명하거나 인근 지역 가축위생시험소에 분변을 병성 감정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한 후 번식우에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한다. 예방접종의 기회를 놓쳤다면 송아지 설사 발생되는 날짜의 이틀 전에 미리 면역증강제와 항생제 혹은 지사제를 주사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면 설사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 할 수 있다.

생후 15일 이내의 전염성 설사의 주 원인은 어미의 초유 내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 초유에 항체를 높이고 내 농장에서 발생하는 설사 원인체에 대해 어미의 산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초유의 항체 형성기간인 분만 70일 전부터 충분한 돈아 먹이기인 영양소 추가 급여와 항체 형성 원료인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미네랄 등을 추가 급여 드레싱 해주고 면역 항체가 높은 초유를 생산

하도록 번식 어미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생후 보름이 지나면 초유를 통한 면역능력은 약해지고 흉선이라고 하는 목 주변 조직으로부터 발달하여 면역기간은 육성우가 되기전까지 면역능력을 담당하게 된다.

흉선(胸腺, thymus)은 목 아래부분에 위치한 면역계의 특별한 기관이자 척추동물의 내분비샘 가운데 하나이다. 면역계에서 중추 림프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며 흉선 내에서 T세포가 성숙한다. T세포는 신체가 외부 병원체에 후천 면역을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흉선의 발달정도는 임신 후기 어미의 돈아먹이기의 상태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며 흉선의 크기가 클수록 면역능력은 커진다. 분만시 송아지의 신체충실지수가 높을수록 흉선의 크기가 크므로 면역능력도 커진다. 흉선의 면역능력이 높을수록 생후 15일 정도 초유면역 기간 이후의 설사 호흡기질환 면역능력을 육성기까지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흉선은 가슴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나비모양의 신체기관으로 전신 면역시스템의

구성과 발달을 결정한다. 흉선에서 발생하는 T세포(흉선세포)는 초유 면역력 이후 면역체계를 담당한다. 흉선의 발달을 위해서는 만삭인 어미소를 한 칸에 모아 놓으면 한 곳에서 사양관리 및 분만관찰과 송아지 설사와 어미의 발정 징후를 한 곳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우는 태아보호 본능적으로 다른 소와 경계심으로 서열 싸움을 하여 부상 혹은 유산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한 우방에 만삭인 소를 여러 마리 합사하는 것을 꺼려한다.

우군 분리가 필요한 경우 싸움 방지는 간단히 향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소는 냄새로 상대를 구분하므로 서로 냄새가 같으면 나와 같은 개체로 인식하므로 성별 경쟁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분만전 합사를 위한 어미소를 가능한 임신 초기에 감정을 한 후 합사 사흘전부터 이전산차 송아지 생시체중과 어미의 생체중을 고려하여 합사를 결정한 후 물분사기에 물을 반쯤 채운 후 향수를 열 방울 희석하여 섞은 후 콧잔등에 향수를 서너 번 뿌려준다. 합사할 우방의 바닥과 파이프에도 향수를 합사직전

뿌려주면 냄새가 진해져 피아구별을 할 수 없어 싸움을 예방한다.

영양소 20~30% 추가 급여하는 효과적인 돈아먹이기 방법은 임신한 태아의 성장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만 3개월 전 송아지 생시체중의 70%가 성장하므로 생시 체중이 30kg 이라면 21kg가 분만전 3개월 사이에 성장한다. 임신말기에 사료증량은 송아지 생시체중 증가 (생시체중 1kg은 출하체중 9kg 증량), 난소기능 향상, 분만, 포유기(60일)에 영향을 준다. 한 겨울에 임신한 어미는 지역별 온도의 차가 있지만 겨울철 기온이 추운 지역이라면 일일급여된 사료의 양이 4kg이라고 가정하면 약 1kg을 체온 유지에 사용하므로 1kg 정도의 돈아먹이기는 의미가 없다.

돈아먹이기 사료 선택은 BCS(신체충실지수)에 따라 철저히 확인하고 소화율이 높고 고영양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후사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알팔파와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면 좋다. 번식우에 대하여 분만할 때 출생 체중을 기록해 두면 다음 분만전 돈아먹이기 할 경우 사료량 결정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돈아먹이기 사료에는 칼



숨과 코팅된 비타민과 킬레이트 된 미네랄을 투여하여 초유의 면역글로브린 활성화로 항체가를 최고로 유지하여야 한다. 돈아먹이기는 당대의 분만 뿐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준다.

갓 출산한 송아지에서 호흡 정지 치료는 코를 자극하거나 마찰 혹은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분만전 소독용 알콜을 분만 우방 앞에 준비해 두었다 송아지가 호흡이 없을 때에 알코올을 손바닥에 따라서 코에다 뿌려주면 호흡 자극이 일어나 재채기와 함께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포유거부는 분만 후 기립불능과 유전적인 형질과 과도한 분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유방의 통증 등의 원인으로 분만 후 포유를 거부하거나 송아지를 밀쳐내는 이상 행동을 한다. 어미는 분만에서 난산으로 오랜 시간 산통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간에 손상을 초래하며 식욕도 저하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송아지에게 젖먹이기를 거부하는 어미의 심정을 축주가 이해하여야 한다. 송아지가 포유하기 위해 접근시 어미가 불안해하거나 포유거부 할 경우에는 포유를 멈추고 간기능 촉진제와 대사촉진제 진통제 등을 수액에 혼합

하여 투여 후 포유방법은 어미를 우방 우측 코너칸에 보정 후 왼쪽 뒷다리 비절 부위를 고정 한 후 옆난간에 묶어 발길질을 못하게 한 후 송아지를 포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병은 소화기 계통의 이상으로 장 내용물(소화물)의 장 통과시간이 짧아져서 수분의 흡수가 감소하여 똥속의 수분함량이 많아지고 배분량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탈수증, 대사장애, 영양장애로 폐사로 이어진다. 발생 원인은 직,간접적인 몇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발병한다. 바이러스성 설사는 어미 소 뱃속에 있을 때 땃줄을 통하여 감염되며, 출생 후 세균과 원충은 송아지 입을 통하여 특이 오염된 유두를 빨거나 오염된 사료나 물을 먹음으로써 감염된다. 어미의 BCS가 높을 경우와 사료 섭취량이 많으면 산유량도 늘어나므로 산유량 조절이 필요하다.

항바이러스제의 선택 방법은 혈청학적인 제재와 화학적인 제재 2가지를 격일로 주사해주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된 농

장은 바이러스가 상존할 경우가 많으며 이때 수혈 처치를 위한 제공혈우는 최근 9개월 이내에 증상이 비슷한 설사를 앓고난 육성우의 혈액을 제공받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최고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 설사하는 송아지의 어미의 혈액은 공혈우에서 배제한다. 설사의 주 원인은 어미의 피에 항체가 적거나 없으므로 송아지가 감염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량 출혈로 인한 수혈시에는 어미의 채혈이 우선이다.

한우의 농장을 관찰하면 한 농장에서 설사의 발생이 생후 7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할 때는 발생 2~3일 전에 면역증강제와 항생제 및 대사 촉진제 헌혈조치를 미리 투여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설사 발생률을 저하하거나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송아지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한 송아지 육성은 설사 치료와 예방이 핵심이다. 누차 지적인 것 같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전해질 공급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증강제의 투여와 체온 유지의 간호가 부족하여 폐사율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아지 설사 후

탈수가 심했던 송아지는 탈수에 대한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탈수가 지속되거나 회복이 늦어지면 송아지가 정상적인 생육을 위한 체력 회복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위축우가 발생하게 된다. 설사가 멈추어도 2~3일 간은 고농축 전해질을 포함하는 수액을 피하 혹은 혈관으로 하루 2~3천cc 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전해질의 투여는 경구투여용, 전해질 제제를 투여하는 방법도 있다. 출혈성 감염 원인으로 대량의 출혈성 설사를 일으킨 송아지는 극도의 빈혈을 일으키므로 적혈구 부족으로 인한 빈혈로 폐에서 산소교환 능력 저하, 소장에서의 영양 흡수전달 능력의 소실로 성장이 지연된다.

룩시듬증 혹은 출혈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에 대한 가장 좋은 처치는 어미소의 수혈이다. 수혈량은 출혈의 정도를 감안하여 충분한 양을 수혈한다. 외부적으로는 피부의 거칠어짐, 구강점막의 건조, 원기소실, 불안한 기립상태(기립 불능 또는 기립 후 곧 주저앉음), 갈증, 침울, 안구 함몰 등의 반응으로 보인다. 대량의 출혈로 인한 적혈구의 손실은 만성 지속성 빈혈을 유발하므로 질병에 대한 면역성 저하와 성장지연 등의 장애를 나타내어 위축우

가 되기도 하다. 위축우 예방을 위해서는 조혈기능이 있는 치료제를 10일 이상 사료에 혼합 투여하거나 주사해준다.

점막이 탈락 될 정도의 중증을 앓은 송아지는 장점막 보호제를 5일 이상 주사하여 장점막이 재생하도록 처치하여야 한다. 송아지 설사 후 면역 능력이 저하되면 호흡기 증상 2차 감염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사료의 영양소를 증가 해주며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를 투여하여 면역 능력을 높여주거나 경구용 면역증강제를 투여하여 호흡기 2차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환절기 일교차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야간에 보온등을 켜주어 일교차에 의한 호흡기 면역력 감소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호흡기는 초유로부터 얻은 면역력이 고갈되는 생후 2~3개월에 기생충,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의 원인으로 어느 한 가지보다 복합적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면역력이 좋아도 주변환경 변화와 이동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 면역기능 저하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증식으로 발병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아지 설사는 단순한 폐사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위축우 발생으로 생산비 이하의 수취가격으로 평균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위축우 발생 방지 치료 후 보조 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의사로서 일반 농가의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설사 치료 후 면역능력 저하로 인한 2차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면 누런 콧물이나 기침이 발견되면 최소 3일 이상 치료하고 호흡기는 영양 소모가 많은 소모성 질병이므로 포도당, 비타민,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공급하면 체력 회복에 유의하여야 한다. 체력이 회복되고 활동성이 좋아지면 치료 효율이 높아진다. 축사에서 송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Cortisol)이 분비되고 소화관의 운동과 소화액 분비 기능을 저하시켜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설사 후 2~3일 후면 호흡기 질병으로 연결된다.

송아지 설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보통 다섯가지의 공통된 증상이 나타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탈수와 전해질 상실, 산

성증, 영양소 부족, 장운동 향진, 체온 저하이다. 한우농가 대부분에서 경험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치료대책의 골자이다. 일반적으로 세균성 설사의 경우 또는 2차적인 세균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하지만 설사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나열한 다섯 가지를 발견 즉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전해질 상실과 산성증은 교정을 위해 전해질을 먹이거나 정맥에 주사하면 송아지 설사가 생겼을 때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탈수 상태에서 송아지 체액의 pH 산성을 나타낸다.

치료를 위한 수액 성분 중 포도당은 산성을 강하게 만들어 과산증을 유발시키므로 폐사한다. 설사에 대한 산성 증상을 중화하는 성분은 알칼리성이며 생리식염수 혹은 하트만 액의 중화제로 좋다. 생리식염수에 고농축의 전해질 제제를 송아지 탈수 상태를 고려하여 적당량 혼합하여 하루 2회 이상 혈관 또는 피하에 공급해준다. 경구용 전해질의 공급은 일시에 다량투여하기 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공

급해주면 탈수교정에 도움이 된다. 초유 공급에 실패한

송아지는 정상적으로 급이된 송아지의 폐사율에 비하여 60%가 높으므로 초유 공급에 실패할 때는 양질의 초유 대용제를 충분히 공급해준다.

한우농가에서 피해가 제일 심한 질병인 설사에 대하여 글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강조하는것은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사 예방방법의 최우선은 누차 강조하였듯이 양질의 초유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미의 초유 형성 시기는 임신 7개월에서 분만 시기에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공급과 돌아 먹이기로 인한 송아지의 흉선 발달이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송아지가 우량한 한우로 성장하며 육질과 육량이 풍부한 경제성이 우수한 한우가 된다. 농가에서는 늘 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약품과 처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다음호 부터는 번식 장애를 논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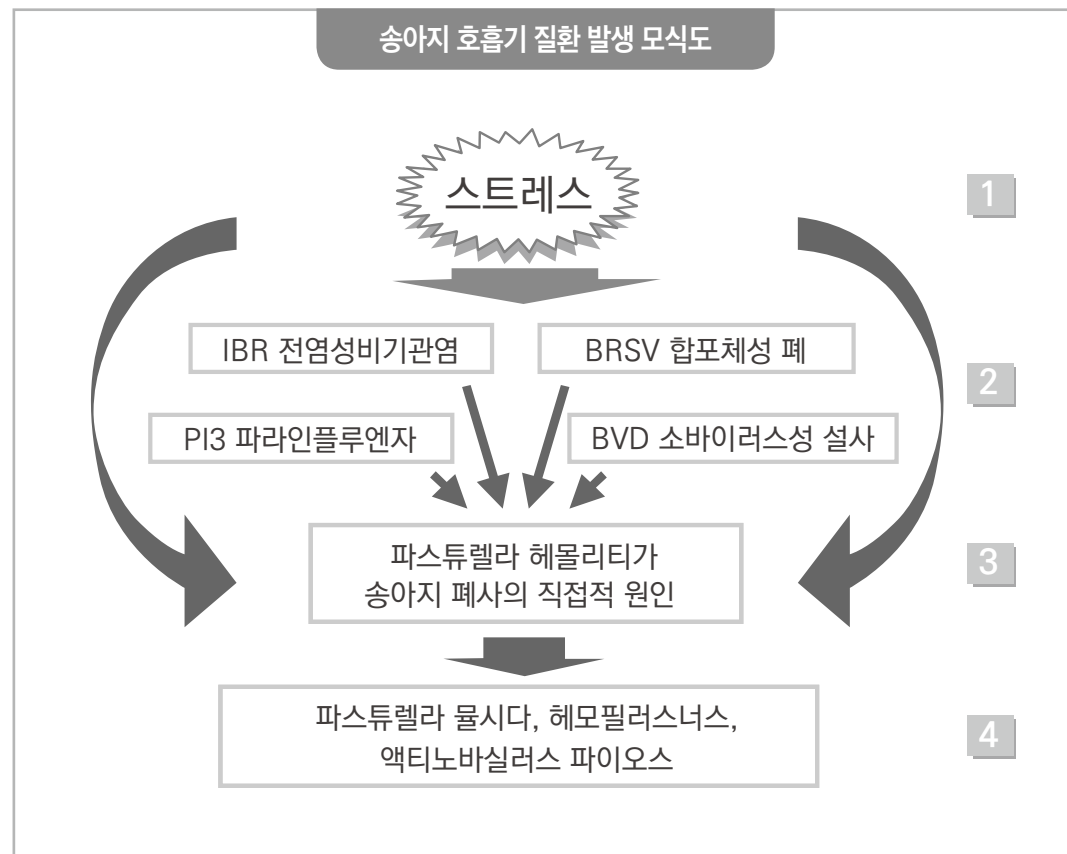
# 어린송아지 호흡기 관리방안

■ 글 · 지엠디컨설팅

송아지 호흡기병은 송아지 설사병과 함께 송아지 폐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전체 송아지 폐사의 30.6%가 호흡기병 때문에 발생하며, 설사병과 복합하여 폐사하는 것과 합하면 51.5%가 호흡기병 때문에 폐사한다.

소 호흡기병은 생후 1개월령 때부터 발병하여 12개월령이 넘을 때까지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면 일령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호흡기 질병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호흡기 질병은 ①원인균(세균성)에 의한 직접적인 폐렴, ②면역기능 저하 및 스트레스로 인한 폐렴, ③이물성 폐렴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실질성 폐렴은 만헤미아, 파스트레라 등 세균감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이라고도 한다. 증상은 기침, 발열, 호흡수가 빨라지고 만성화되면 호흡을 하려고 두부를 늘이고 혀를 내미는 행동이 나타난다.

② 스트레스성 폐렴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면역기능의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또한 가스교환이 잘 되지않아 발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또한 전신증상이 악화되면 목을 늘어뜨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③ 이물성 폐렴은 대용유, 음수, 약제 등 이물의 섭취에 의하여 일어나는 폐렴으로 기침, 호흡증가, 발열 등이 나타난다. 또한 만성화되면 배 전체가 호흡하는 복식호흡이 되어 예후가 불량인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호흡기의 직,간접적 원인

직접적 원인			간접적 원인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곰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기간 수송, 사육장소 변경</li><li>• 환기불량및밀집사육</li><li>• 장기간물,사료먹지못한경우</li><li>• 갑작스런기온변화,일기불순,심한 일교차(10℃이상)</li><li>• 과격한운동이나불안한상태가 지속 될 때</li></ul>
소전염성비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	폐충증	아스페르질러스	
소바이러스성설사	파스튜렐라멀토시다			
파라인플루엔자	파스튜렐라헤몰티카			
소합포체성 폐렴	포도상구균			
소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	코라이네박테리움			
소아데노바이러스7형	슈도모나스,방선균증			
소아데노바이러스3형	대장균			

농장에서 사육하는 기간 동안에 기관지폐렴이 문제되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출생 후 2~3개월령이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입식한 후 1~3주째이다.

발생의 배경에는 바이러스, 세균 등의 병원체의 존재와 숙주인 송아지의 상태, 영양의 충족도, 면역(저항력)의 상태, 사육형태, 사육밀도, 환기상태, 온도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암모니아 가스의 영향에 의해 호흡기 세포가 장애를 받거나 더위, 추위에 의한 환경악화로 인해 송아지는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송아지의 저항력은 약해지게 된다. 병원체는 사육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속적인 감염원이 된다. 이와 같은 병원체와 송아지상태 여기에 사육환경이 열악하면 집단발병으로 농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농장의 호흡기 발생 상황점검은 다음과 같다.

### 호흡기 질병 예방 충분한 영양 공급 무엇보다 중요

특히 초유를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자란 송아지나 출생 당시부터 허약체질인 송아지,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송아지 또는 만성적인 설사를 하고 있는 소들은 2차적으로 호흡기 질병에 노출된다.

영양이 충족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피모의 상태중 겨울철 안면의 털이 서 있는 경우나 전신 피모에 조약감이 있는 경우, 피부병(피부 진균성)의 발생이 많은 경우 등은 영양부족을 의심하여 볼 수 있다.

이유전후 스트레스는 저항력을 떨어뜨리는데 이시기의 조치사항은 입식우 조치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

#### 농장의 호흡기 발생 상황점검



포크머신이용 환기점검



열화상진단 프로그램이용(질병우)



낙하세균 측정



원인균 배양 및 확인



CO<sub>2</sub> 및 NH<sub>3</sub> 측정



농장 개선사항 전달

지속성 항생제 투여, 비타민 투여, 생균제의 연속첨가도 유효하다. 장내 세균총을 정비함으로서 사료의 소화흡수가 좋아져서 면역력의 상승이 기대된다. 좀더 정확한 판단은 혈액 검사(MPT)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총콜레스테롤농도가 영양 과부족을 판단하는 근거로 여러 논문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영양을 너무 섭취하면(이른바 과식)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하고 부족할 때에는 감소한다. 이외에 총 단백질도 영양상태 판단에 이용되는데 총 콜레스테롤 변동치가 크기때문에 보다 판정하기 유리하다고 한다. 1개월령 송아지의 정상 총콜레스테롤의 값은 평균적으로 83.9~172.4mg/dl 정도로, 영양이 충족되어 있다면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는데 송아지의 증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슐린 성장인자 (IGF-1) 비례한다. T-cho가 80mg/dl 미만의 송아지의 IGF-1의 평균치는 74ng/ml이고 80mg/dl 이상의 송아지의 IGF-1의 평균치는 105.6ng/ml 정도로, 즉 영양충족은 감염저항성을 증강함과 함께 성장인자의 농도나 송아지의 성장 등에 영향을 준다.

### 적절한 환기와 적정 습도와 보온 필요

가축에는 각각 발육에 적당한 온도(호적 온도)가 있어서 연령이나 품종에따라 다르다. 포유 송아지에서는 13~25℃, 육성 송아지는 4~20℃, 성우나 비육우는 10~15℃가 기준으로 되어 있다.

출생한 송아지는 추위나 더위에 약하여 체온조절이 좀처럼 잘 조절되지않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실온이 13℃ 이하가 되면 추위에 대하여 체온을 빼앗겨 체온이 1℃ 저하되면 면역세포의 활성이 20~30%정도 저하된다고 하며,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가 발생하여 발육이 늦어지게 된다.

한냉에 의하여 배가 차가워지면 포유중의 어린 송아지와 육성우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송아지는 주요 장기가 발달과정에 있기때문에 소화작용이나 체온조절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우 송아지는 젖소 송아지보다 피하지방이 적어서 기온의 변화를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온난차이가 큰 겨울에 우사내의 온도가 낮아 바닥이 낮은 상태에서는 체온을 빼앗겨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원기소실이나 식욕부진이 되고 설사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설사를 일으킨 후에 호흡기 질병이



많이 나타나기때문에 호흡기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배를 차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냉한기의 방한대책으로서 가축용 히터, 보온 매트 등의 단열재의 이용, 충분한 깔짚투입, 틈새 바람의 침입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축사 내의 습도 또한 호흡기질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 추운 상태에서 습도가 높아지면 공기는 동물체에서 수분발산을 적게 하고 전도되는 체온을 탈취하므로 추위에 시달리게 된다.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 또한 각종 병원 미생물의 번식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호흡기병을 포함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반대로 축사내가 건조하고 습도가 낮아지면 먼지가 많아져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고 눈의 염증(안결막염)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축사내에 습기가 많은 것보다는 건조한 편이 가축에게 피해를 오히려 적게 준다.

축사가 불결하여 분뇨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가스와 호흡에서 생기는 탄산가스가 축사의 환기불량으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여 눈, 코, 입 등을 자극하게 된다. 이들 가스는 기관점막을 자극하여 삼출물이

증가하게 되고 기관점막에 붙어 있는 섬모운동이 감퇴되어 생성된 삼출물을 외부로 배출(기관점막의 섬모운동은 1분에 15mm속도로 기관내 이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시키지 못하고 폐조직으로 내려가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다 주야간의 기온차가 심하고 축사의 습도가 높고, 밀집 사육시키면 발병속도는 가속된다.

통상적으로 인간이 암모니아를 느끼는 농도는 25ppm정도이며 참을 수 있는 농도는 50ppm정도라고 한다. 건강, 안전면에서 25ppm에서는 2시간 이상 작업을 하지못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측정하는 높이도 중요하다. 바닥으로부터 5~10cm 정도로, 즉 송아지가 누운 상태에서 코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송아지의 경우는 안전범위로서 10ppm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농도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깔짚을 교환하거나 사육밀도를 낮추고, 또는 추울때에도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컨설팅 현장에서 우사의 여러곳을 측정하여 보면 환기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나 암모니아 수치가 높은 곳을 많이 발견한다.

###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중요한 예방법

소에게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질병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육밀도가 중요하다. 사육밀도가 높아지면 사료섭취량의 균일성이 떨어져서 순위가 낮은 소는 성적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소가 눕는 횟수, 일어나는 횟수가 적어지는 등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호흡기병, 설사, 피부병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 그래서 최적의 사육밀도의 기준은 1두당 면적으로서 비육우의 집단사육에서는 3.6㎡, 3~5개월령의 군사에서 3.65㎡, 6~8개월령의 군사에서 3.8㎡으로 권장 하는데. 농장에서 호흡기병이나 피부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 사육면적을 약 2.2㎡에서 3.6㎡으로 넓혔더니 호흡기 질병의 발생이 감소하고 발육도 개선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호흡기 증상은 기침을 하면서 콧물을 흘리게 되는데, 콧물의 증상은 초기에는 투명한 점액성이나 증세가 악화되고 진행됨에 따라 점액농양으로 변하게 되며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먼지 등이 혼합되어 코주위가 지저분하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면 콧등은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지게 된다. 콧물의 상태가 점액성이거나 농

성이면 콧구멍이나 비강에서 나오는 것이고 콧물에 거품이나 혈액이 섞이어 나오게 되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폐사율도 높아지게 된다.

식욕은 감퇴되거나 없어지고 열(40.5℃~42℃)이 있어 콧등은 마르고 눈이 충혈되고 호흡도 빨라지며 심한 증상에서는 호흡곤란이 와서 입을 벌린채 헐떡거리고 거품 섞인 침을 흘리게 된다.

급성의 경과를 취할시는 어린 송아지나 허약한 소에 있어서는 발병 3~7일만에 폐사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병의 경과 는 약 1주일간이며 때로는 만성화하여 수주일 또는 수개월간 경과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치료 3~4일만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만일 4~5일까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후는 불량하게 된다.

급성형이고 전염력이 강한 호흡기 질병은 항상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며, 발생규모도 크게 되는데 예를 들면 10두사육중 7~8두가 동시에 발병되면 병원성이 강하고 전염력이 강한 호흡기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호흡기병의 발생단계			
진행단계	진행상황	폐렴에 관여하는 비율	
		발생율(%)	사망율(%)
1단계	스트레스에 의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백혈구 탐식기능 마비(면역기능감퇴)	40	5
2단계	인후두부에서 바이러스가 1차적으로 증식 (IBR, BVD, PI-3, RS, AD, BRSV 등)	30	20
3단계	바이러스의 전신적 이행, 호흡기 조직 파괴, 고열발생 파스텔렐라에몰리티카의 급격한 증식 및 폐조직 파괴	20	55
4단계	호흡기 내 상재세균의 급격한 증식 호흡기 세포의 급격한 파괴(폐렴 발생)	10	20

호흡기 질병의 평가				
관찰 항목		점 수		
		0	1	2
체온	송아지	39.5℃ 미만	39.5~39.9℃	40.0℃ 이상
	성우	38.9℃ 이하	39~39.9℃	40.0℃ 이상
호흡수(회/분)		49 이하	50~79	80 이상
맥박수(회/분)		89 이하	90~119	120 이상
식욕		정상	약간 감퇴	식욕 없음
기침		없음	움직이면 기침	가만히 있어도 기침
코물		없음	맑은 코물	고름 모양
청진소견		없음	약간 있음	심함

판정기준 : 점수합계 10이상(심급성, 만성, 치료불가), 6~9(급성, 치료곤란), 5이하(초기 또는 회복기)

###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일 이상 계속 치료해야

특효있는 약재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아울러 철저한 사양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였으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하고 완치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일간 더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재발의 위험이 적거나 치료시 효과가 빠르고 정상체온으로 열이 내리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가벼울 때에는 최소한 2일간 더 치료해 주고 중증인 경우에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고 또한 폐사율도 높아지게 된다.

호흡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는 예방접종을 고려해야한다.

기관지폐렴은 바이러스가 1차적으로 감염된 후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발병하기 때문에 1차적 원인인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예방접종만 제때 해주면 질병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호흡기가 발생되면 급속하게 소 전체에 퍼지는 호흡기 질병은 발생우에 소요되는 치료비용 및 만성경과의 소가 때로 폐사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큰질병이다. 호흡기의 예방은 매일 소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사료관리,사료급여, 입식우의 위생관리 등의 대책을 실시함으로 예방에 우선 해야한다.

# 한우와 사람

1

인물탐구  
"협회사료 써봐유~.  
송아지 '때깔'이 다르다니께~" \_김충완 회원

2

인터뷰  
황성축협 조합원 자격 재획득한 원광희 씨

3

탐방  
피드업



# 협회사료 써봐유 -

농민 구심점 된 협회,  
농가 권익 보호 앞장

사료·유통 부문 진출에  
농가 선택권 '활짝'

농장 경영에 큰 도움  
마리당 70만 원 이익

협회 사업 동참 중요...  
한우 농가 결집 필요

김 충 완 회원



■ 글 · 박현욱 (농축유통신문)

## 송 아 지 때 - 깔 이 다르 다니 깨

1983년, 당시 송아지 값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시 150만 원의 시세를 유지했던 송아지 가격은 단돈 8만원에 거래되면서 번식을 주력으로 한 송아지 생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살아있는 소를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한우인들의 위기감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한우산업의 위기는 한우인의 목소리를 모으고 증폭하는 창구가 절실하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한우협회 창립에 불을 지폈다. 한우 사육경력 40여년. 전국한우협회 전 부회장이자 완농장의 김충완 대표는 위기 때마다 한우산업의 위기를 타파해 온 협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지금, 한우인들의 결집과 화합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 우리의 지분 한우협회 한우인의 든든한 지원군

충남 당진에 위치한 완 농장. 그는 이곳에서 청년 시절을 한우산업에 불살랐다. 한우가 우리나라의 민족 산업이라는 철학 하나로 꾸준히 사육에 전념해 온 그는 1, 2, 3차 한우 파동을 맨몸으로 부딪쳤다. 때문에 그는 한우협회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깊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한우 사육을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한우 1~2마리 키우는 농가가 대다수였죠. 지금처럼 대군 농가는 생각지도 못하죠.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인 어려운 시절에는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절실한 일이었는지... 1999년 한우협회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산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동 대응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었고 지금의 한우산업을 만들어냈죠.”

한우협회의 동력은 산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한우인들의 일념 단 하나였다. 한우인들의 열정이 모여 탄생한 협회는 산업을 지켜내자는 살아있는 운동체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서 각종 농민단체 중 가장 선명한 색깔을 드러낸다. 협회가 중심이 된 한우산업은 어려울 때마다 한우인들의 단단한 구심점이 됐고, 원산지 표시제·한우자조금 설립 등 어느 농민단체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차곡차곡 수행해 나가며 한우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탈바꿈한다.

## 농민의 선택권 강화 등 권익보호 한우 산업 주체성 확립에 큰 역할

김 대표는 건실한 협회가 한우산업의 변성으로 이어지고, 농민이 잘 사는 축산환경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가 협회전용 전용사료, 직거래유통망 등 협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농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가 잘 돼야 합니다. 그동안 협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특히 산업을 위한 공적인 일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한우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조절사업이죠. 선제적 수급조절로 한우 가격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협회 전용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품질 좋고 가격도 싼 사료가 있을까요. 직거래유통망도 농가들의 숨통을 틔게 했죠. 과거 음성공판장만 바라보는 농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농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성과가 나오는 사업들을 손에 잡히게끔 구축했다는 게 한우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 협회사료 급여 이후 사료값 마리당 60~70만원 절약 출하 등급도 훌쩍...소득증대 견인

그는 지역에서 한우협회 전용사료 전도사로 불린다. 협회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신념도 있지만 무엇보다 농장 경영 측면에서 쏠쏠한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사료를 급여 했



을 때보다 마리당 60~70만 원은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 김 대표는 송아지 사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농가들이 사료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여신 문제라든가 그동안의 관행 등 수많은 변수를 감수하기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협회 전용 사료가 출시되자 과감히 바꿨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농장에 적용해 본 결과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농가들이 협회 사료 품질 좋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특히 송아지 사료를 먹이면 대변에 눈에 보여요. 송아지 '때깔'이 다르거든요.”

송아지는 어린아이처럼 먹거리에 민감하고 겉으로 표가 난다. 단순히 2주만 협회 사료를 먹여도 송아지는 털에서 윤기가 흐르고 색 또한 선명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 쉽게 사료를 바꾸지 못하는 농가들의 특성상 송아지 사료부터 사용하게 되면 협회 사료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단 농가들이 스스로 사용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입질부터 달라요. 일단 사료 자



체가 맛있어서 기호성이 뛰어나거든요. 40년 가까이 소를 키워왔는데 숨 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협회가 송아지 사료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대형 마트에서 시식을 하듯 일단 먹여보는 거죠. 먹어 보면 협회 사료에 호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 “협회 사업 참여 절실, 위기 시 빛날 것”

협회 전용 사료는 출시된 지 2년이 지났다. 협회 전용 사료 론칭 이후 한우 출하 사이클을 넘기자 조금씩 데이터가 쌓이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일반 사료를 먹었을 경우와 협회 전용 사료를 먹인 후 김 대표의 출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월 총 16두 출하 시 1+ 등급 이상의 경우 6마리인 37%에 지나지 않았지만, 협회 사료를 먹인 후인 올해 1월 출하한 총 8마리 중 7마리가 1+ 등급 이상을 보이면서 87%라는 높은 등급 출현율을 보였다.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감으로도 확실히 등급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협회 사료를 먹였기 때문으로 확신해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가 사료를 바꾼 것 말고는 없거든요.”

등급	'18.1월	'21.1월	2018년 1월(일반사료)	2021년 1월(협회사료)
1++	1	3		
1+	5	4		
1	8	1		
2	2	0		
출하두수	16	8		

김 대표는 협회 직거래유통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과거 음성 공판장을 이용하지 못해 설움을 겪었던 그는 협회 전용 직거래유통망이 나오면서 더 이상 출하로 골머리를 썩

지 않아도 된다는 게 김 대표의 귀땀. 과거 매일 한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했던 그는 음성 공판장 평균 가격을 준용하는 직거래유통망의 정산 시스템으로 삶의 질까지 달라졌다고 말한다.



“협회 전용사료와 직거래유통망은 획기적인 협회 사업입니다. 농

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물론 향후 사업 몸집을 키우고 저변을 넓혀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긴 하지만 농가들이 사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사료와 유통 부문의 선택권을 쥐여준 셈이잖아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독과점을 깰 수 있는 안전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육 두수 증가로 앞으로의 한우산업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대표는 협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수입 생우를 막아왔던 성과를 기억하며 한우 농민 스스로가 협회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 농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위기 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협회가 그동안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 등 목소리를 높여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한우 농민의 결집된 힘이었습니다. 다만 협회도 농가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회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은 협회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 스스로 일궈온 사업의 중요성을 이제는 모든 한우 농가가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류 승 규 피드업 본부장



## 세계가 주목하는 '피드업' 발효대두박 「소이랩패스」

**한우협회 지회·지부를 통한 신청만  
최저가로 드립니다!**

피드업은 오직 기술력과 품질 하나로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발효대두박 기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우리 협회는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피드업 본사에서 만난 류승규 본부장은 최근 좋은 소식이 있다며 함박 미소로 반겼다.

### 세계 수출 '날개' 목전 바이패스율과 소의 건강 관계는?

“해외 모 대기업에서 우리 제품의 직접 수입을 위해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타사의 다위동 물용 대두박 제품 7종과 직접 블라인드 비교분석을 한 결과가 왔는데 단연 압도적인 우수성적으로 국내 생산의 몇배 규모로 수출하는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요구르트균과 같은 유산균 특허발효기술을 활용해 대두박으로부터 바이패스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피드업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실제 성적표를 들여보니 조단백(CP)과 바이패스율(RUP), 장에서의 소화율 이 세계 유수의 7개 기업들의 제품 가운데 최고 높게 나왔고 당분과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 함량은 제일 적었다. 바이패스율이 높다는 건 단백질 소화가 잘 됐다는 의미다.

바이패스율이 낮으면 소의 되새김질 중 제 1,2 위내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배가 불룩해 방귀를 많이 끼게 된다. 또, 배에 포만감이 유지돼 사료를 먹지 않아 증체가 멈추고 설사와 거친 호흡 등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심해지면 고창증으로 이어져 폐사까지 이를 수 있다.

즉, 조사료나 볏짚이 아닌 단백질을 함유한 사료 등이 위에서 발효가 되면 가축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농가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패스율(RUP)이 높아야 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피드업의 소이랩과 소이랩패스는 소의 충분한 소화를 돕고 양질의 영양분으로 증체를 견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피드업 전경



## 협회 MOU 효력, 지회·지부통해서만 최저가 공급 “한우농가와 장기적 상생 위해 고통분담”

수입산 대두박은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콩기름을 짜고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대략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 긴 기간동안 온갖 잡균들이 그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균을 넣고 발효시키면 오히려 그 잡균들이 증식할 최적의 환경이 되어버려 제품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게 류승규 본부장의 설명이다. 들쭉날쭉한 수입산 대두박에 비해 품질이 안정적이고 멸균처리 후 빠르게 입고되는 국내산 대두박은 오염이 거의 없다. 해썬(HACCP)관리 체계를 도입해 식품에 준하는 생산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두가격만 치면 53% 올랐어요. 원가 700원 수준이었던 국내산 대두박도 현재 100원 이상 상승했는데, 한우농가들에게는 지금 최저가를 유지할 겁니다. 이미 안동시지부 지부 회원농가들과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회사 이윤은 수출로 창출하겠습니다.”

## “믿고 쓰는 거 ~성적도 괜찮여~” “증체/육질개선/출하시기 단축 효과”

실제 농가가 느끼는 효과는 어떨까. 충남 당진시에서 소이랩패스를 급여중이라는 이돈식 씨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논산에서 한우연구회를 운영하기도 한 그는 먼저 소이랩패스를 써보고 주변 농가들이게 권유하기도 했다고.

그는 “보이는 효과가 없다면 당장 끊었을 것이다”며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성적이 향상됐다”고 신뢰감을 표했다. 그는 TMR자가배합으로 첨가하고 급여한다.

소이랩패스를 급여하는 만큼 배합사료 급여량이 줄고 등급상향이나 출하단축 등으로 투입되는 금액 대비 곱절 이상의 이익으로 되돌아 온다는 설명이다.

피드업 류승규 본부장은 “50kg 이상의 증체와 육질개선, 출하시기 단축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이 농가에게 돌아갈 경우 최소 두당 5배이상은 되지 않

겠느냐”면서 “젖먹이는 송아지 때부터 급여하면 소장의 용모 발달에도 효과가 커 소 성장에 매우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출하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당장 끊겠다고 엄포를 놓던 경주의 한우농가는 조용히 월 3톤씩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고.

“젖소는 이미 검증돼 유량증가와 유량의 질이 대폭 상승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몇몇 사료회사들이 이미 급여를 하거나 실험급여를 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한우협회와 MOU를 맺은 기업으로서 한우협회가 지향하는 생산비 절감, 환경개선 등의 목표에 동감하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 공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피드업 사용농가



연구실

연구원

### 피드업은 어떤 기업?

가축의 건강에서 면역력은 곧 생산성과 농가 수익과 직결된다. 면역력 이슈에서 특히 장내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가축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드업의 발효대두박은 독보적인 특허기술인 발효균주를 통해 장내 면역력을 조절하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피드업은 혐기 발효공정으로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발효공정시간이 호기발효(48시간)에 비해 절반수준(12시간)이어서 신속하고 강력한 발효가 진행된다. 특허균주의 혐기 발효로 생산원가가 낮고 유산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 횡성축협 조합원 자격 재획득한 원광희 씨

“조합원들이 주인인  
조합으로 변화해야”



4929만2241원. 원광희 씨가 2017년도에 횡성축협의 사업 관련 이용했던 금액이다. 그는 여신 1542만원, 구매 1734만원, 수신 1190만원 등 조합의 사업을 고르게 이용했지만 2018년 4월 제명됐다. 횡성축협 사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원광희 씨와 함께 제명된 20명의 조합원들은 약 3년 동안 횡성축협과 법적 다툼을 진행했고 지난 1월 14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후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2월 3일 만난 원광희 씨는 제명 조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적잖은 손해를 봤지만 여전히 횡성축협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횡성한우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농가들 입장에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를  
쓰기 위해서였다



분통을 터트렸다. 원광희 씨에 따르면 그는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횡성축협 우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할 때마다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내야했다. 경매 수수료도 조합원의 두 배 수준으로 납부했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 40년 가까이 활동한 그로서는 부당한 처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횡성축협은 매도자는 낙찰가격의 1%, 매수자는 2만5000~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원광희 씨는 “제명됐을 때 어이없고 황당했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며 “여전히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도 사고 팔아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을 잃은 후 우시장에서 우리는 일반인 취급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조합원 자격을 회복했지만 횡성축협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다. 얼마 전 배당금 관련 문자 온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횡성축협이 제명한 사유에 대해 이들은 조합 사업 미이용은 명분일 뿐 횡성한우협동조합 가입, 현직 조합장에 대한 쓴 소리 등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원광희 씨는 “만약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라면 (제명된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이용량이 적어서 제명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유예기간을 줘야 했다”며 “하지만 횡성한우협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제명시킨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횡성한우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농가들 입장에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를 쓰기 위해서였다. 횡성축협에도 그동안 이 같은 사향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당시 (횡성한우조합의 사료가) 25kg 1포에 약 800~1000원 정도 저렴했다”고 설명



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비싼 가격 때문에 사료를 자가제조하는 농가들이 많다. 조합의 사료를 쓰지 않은 것이 제명 이유라면 더 많은 조합원들이 잘렸을 것”이라며 “사료비를 절감해서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해 돈을 벌겠다는 조합원을 조합이 내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자격을 재획득한 20명의 조합원들은 횡성축협을 비롯한 전국의 축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싸울 것으로 보인다. 원광희 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이 횡성축협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과연 횡성 사태의 상황을 잘 알고 서명한 것인지 의아하다”며 “그 탄원서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장들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사과문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는 “횡성축협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면서도 “우리는 축협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건실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어찌 보면 그의 요구는 당연하다. 그 바람을 현실화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인 듯하다.

# 정보 마당

1

한우정책연구소  
2월 한우동향분석

2

백문백답  
한우사육

3

기고①  
한우사료급여 시, 축사 내 미세먼지 농도변화

4

기고②  
우량송아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

5

생활법률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 한우 동향분석

■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김한중 수석연구원(02-525-1053)으로 연락주시요.



## 요약

### (한우사육) 2021년 2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가임암소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화 진행 중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연령에서 전년동월 대비 증가

### (등급판정) 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대비 증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2%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 : 23.3%, 1+ : 26.7%, 1 : 25.2%

### (도매 및 산지가격) 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 큰암소·송아지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 한우 도체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모두 상승
-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큰수소 하락 전월 대비 큰암소·숫송아지 상승, 큰수소·암송아지 하락

### (배합사료·정액판매) 전년동기 대비 1월 판매량 모두 증가

- 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인 한우 사육증가로 인해 증가
- 1월 정액 판매량은 가임암소 증가와 높은 번식의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

### (쇠고기 수입)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소폭 감소한 반면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큰 폭 증가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증가

### (수급전망) 한우 사육 증가세 지속 및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 가임암소 및 정액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 예상,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 예상되며,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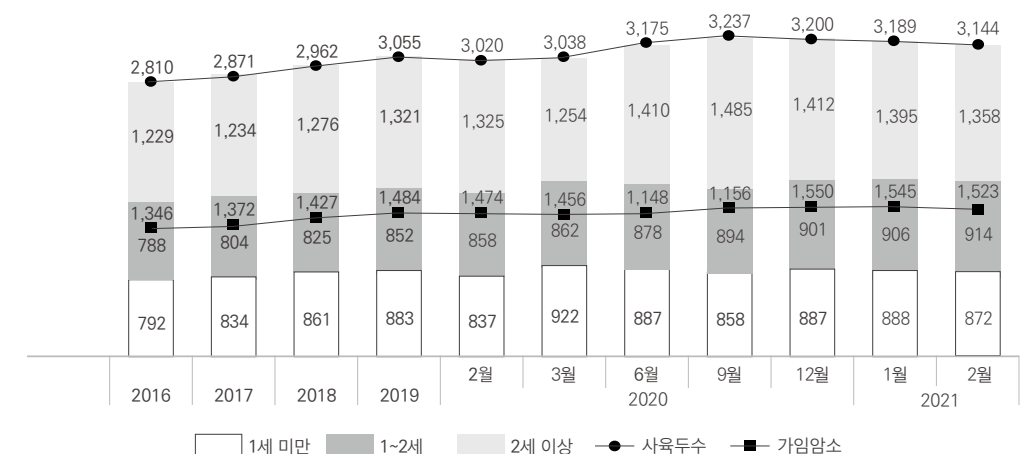
## 01 한우 사육동향

2021년 2월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감소, 가임암소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 한우 사육두수는 314만 4천두로 전년동월(298만 8천두)보다 5.2%(15만 6천두) 증가, 전월(318만 9천두) 대비 1.4%(4만 5천두) 감소
- 전년동월 대비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를 비롯한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 전월대비 감소는 1~2세 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2.11~14)로 인한 도축 증가로 가임암소를 비롯한 2세 이상에서 두수가 감소(1세 미만 감소는 1~2세로 이동)했기 때문
- ◆ 가임암소는 152만 3천두로 전년동월(145만 7천두) 대비 4.5%(6만 6천두)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1.4%(2만 2천두) 감소
- ◆ 연령별 사육두수는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월 대비 각각 5.4%(4만 5천두), 5.9%(5만 1천두), 4.7%(6만 1천두) 증가
- 전월 대비 1~2세는 0.9%(8천두) 증가한 반면 1세 미만과 2세 이상은 각각 1.8%(1만 6천두), 2.7%(3만 7천두) 감소

<그림 1> 가임암소 및 연령별 두수 현황

(단위 : 천두)





- 농장수는 88,860호로 전년동월(89,322호) 대비 0.5%(462호) 감소, 전월(88,933호) 대비 0.08%(73호) 감소해 농장 감소세가 지속
- 농장당 사육두수는 35.4두로 전년동월(33.4두) 대비 6.0%(2.0두) 증가, 전월(35.9두) 대비 1.4%(0.5두) 감소

<표 1> 한우 사육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 두수	가임 암소 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13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1	887	901	1,412	36.0
2020	2월(A)	89,322	2,988	1,457	59	827	863	1,297	33.4
	3월	89,411	3,038	1,456	186	922	862	1,254	34.0
	6월	89,155	3,175	1,480	383	887	878	1,410	35.6
	9월	88,893	3,237	1,546	256	858	894	1,485	36.4
	12월	88,879	3,200	1,550	148	887	901	1,412	36.0
2021	1월(B)	88,933	3,189	1,545	35	888	906	1,395	35.9
	2월(C)	88,860	3,144	1,523	38	872	914	1,358	35.4
증감 율	전년동월(C/A)	△0.5	5.2	4.5	△34.9	5.4	5.9	4.7	6.0
	전월(C/B)	△0.08	△1.4	△1.4	9.7	△1.8	0.9	△2.7	△1.4

주 : 1. 매월1일 기준

2. 2020년 4분기까지 분기별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며, 그 외 월별 자료는 '소이력제현황' 자료임

3. 송아지 생산두수의 경우 2020년 4분기까지 자료는 가축동향-한우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자료이며, 2020년 2월, 2021년 1·2월은 이력제시스템-지역별 출생신고현황 당월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0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97,034두로 전월(67,612두) 대비 43.5%(29,422두) 증가, 전년 동월(88,077두) 대비 10.2%(8,957두)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42.4%, 수소 1.3%, 거세우 56.4%
  - \* 전월대비 : 암소 1.0%p↓, 수소 변동 0.2%p↑, 거세우 0.9%p↑, 거세율 0.3%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20.1.~1월)	88,077	38,294	1,465	48,318	97.1
	(100.0)	(43.5)	(1.7)	(54.9)	
금년누계 (‘21.1.~1월)	97,034	41,101	1,240	54,693	97.8
	(100.0)	(42.4)	(1.3)	(56.4)	
전년동월 (‘20.1월)	88,077	38,294	1,465	48,318	97.1
	(100.0)	(43.5)	(1.7)	(54.9)	
전월 (‘20.12월)	67,612	29,366	741	37,505	98.1
	(100.0)	(43.4)	(1.1)	(55.5)	
당월 (‘21.1월)	97,034	41,101	1,240	54,693	97.8
	(100.0)	(42.4)	(1.3)	(56.4)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1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23.4%, 1+등급 26.5%, 1등급 25.9%

- 1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8%로 1++등급 23.4%, 1+등급 26.5%, 1등급 25.9%
  - 전월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2%) 대비 0.6%p↑, 1++ 등급은 0.1%p↑, 1+등급은 0.2%p↓, 1등급은 0.7%p↑
  - 전년동월(74.4%)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변동 1.4%p↑, 1++등급은 1.0%p↑, 1+등급은 1.9%p↑, 1등급은 1.5%p↓
  - 전년누계(74.4%)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변동 1.4%p↑, 1++등급은 1.0%p↑, 1+등급

은 1.9%p↑, 1등급은 1.5%p↓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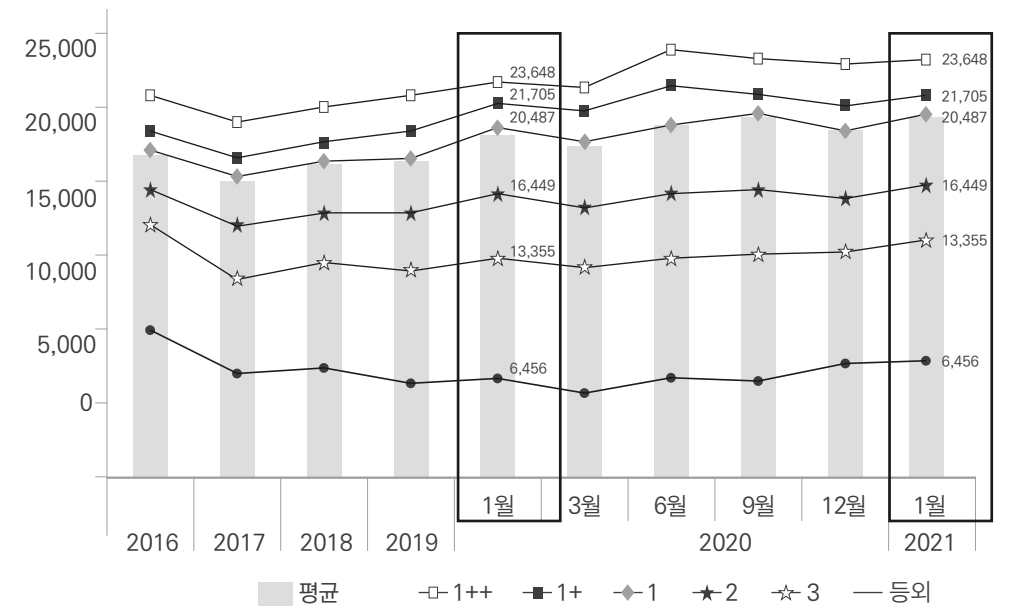
(단위 : 두, %)

구분		판정 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0	1월(A)	88,077	22.4	24.6	27.4	74.4	18.2	7.2	24.2	49.5	26.2	0.1
	1~1월(B)	88,077	22.4	24.6	27.4	74.4	18.2	7.2	24.2	49.5	26.2	0.1
	12월(C)	67,612	23.3	26.7	25.2	75.2	17.3	7.2	22.0	51.3	26.5	0.2
2021	1월(D)	97,034	23.4	26.5	25.9	75.8	17.3	6.8	22.8	50.7	26.3	0.2
	1~1월(E)	97,034	23.4	26.5	25.9	75.8	17.3	6.8	22.8	50.7	26.3	0.2
전월대비(D-C)		29,422	0.1	△0.2	0.7	0.6	0.0	△0.4	0.8	△0.6	△0.2	0.0
전년동월대비(D-A)		8,957	1.0	1.9	△1.5	1.4	△0.9	△0.4	△1.4	1.2	0.1	0.1
전년누계대비(E-B)		8,957	1.0	1.9	△1.5	1.4	△0.9	△0.4	△1.4	1.2	0.1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20,403원/kg)은 전년동월(19,434원/kg) 대비 5.0%(969원/kg) 상승, 전월(19,644원/kg) 대비 3.9%(759원/kg) 상승

<그림 2>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1월(A)	22,197	21,003	19,778	15,990	12,356	5,534	19,434
	12월(B)	23,347	20,959	19,152	15,612	12,683	6,397	19,644
2021	1월(C)	23,648	21,705	20,487	16,449	13,355	6,456	20,403
증감율	전년동월(C/A)	6.5	3.3	3.6	2.9	8.1	16.7	5.0
	전월(C/B)	1.3	3.6	7.0	5.4	5.3	0.9	3.9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0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1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모두 상승

- ✦ 1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20,487원/kg)은 코로나19에 의한 가정내 소비증가 및 설선물 수요증가로 전년동월(19,778원/kg) 대비 3.6%(709원/kg) 상승, 전월(19,152원/kg) 대비 7.0%(1,335원/kg)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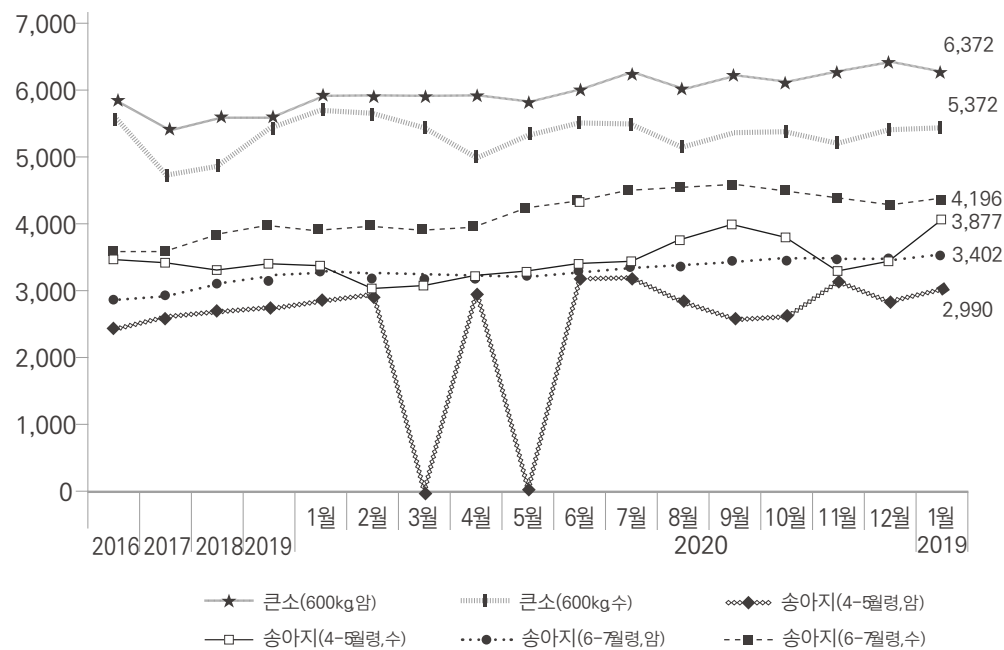


## 1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 큰수소 하락

### 전월대비 큰암소·숫송아지 상승, 큰수소·암송아지 하락

- 1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6,372천원으로 전년동월(5,895천원) 대비 8.1%(477천원) 상승, 전월(6,266천원) 대비 1.7%(106천원) 상승, 전년 평균(6,114천원) 대비 4.2%(258천원) 상승
- 반면, 수소의 경우 5,372천원으로 전년동월(5,672천원) 대비 5.3%(300천원) 하락, 전월(5,461천원) 대비 1.6%(89천원) 하락, 전년 평균(5,446천원) 대비 1.4%(74천원) 하락
- 1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402천원으로 전년동월 (3,239천원) 대비 5.0%(163천원) 상승, 전월(3,473천원) 대비 2.0%(71천원) 하락, 전년 평균 (3,435천원) 대비 1.0%(33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196천원으로 전년동월(3,959천원) 대비 6.0%(237천원) 상승, 전월 (4,164천원) 대비 0.8%(32천원) 상승, 전년 평균(4,295천원) 대비 2.3%(99천원) 하락

<그림 3>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1월(A)	5,895	5,672	2,840	3,246	3,239	3,959
	3월	5,943	4,983	-	3,132	3,299	3,960
	6월	6,255	5,504	3,189	4,393	3,610	4,505
	9월	6,101	5,420	2,571	3,733	3,481	4,510
	12월(B)	6,266	5,461	2,792	3,321	3,473	4,164
	평균(C)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19	1월(D)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증감율	전년동월(D/A)	8.1	△5.3	5.3	19.4	5.0	6.0
	전월(D/B)	1.7	△1.6	7.1	16.7	△2.0	0.8
	전년 평균(D/C)	4.2	△1.4	△2.3	4.5	△1.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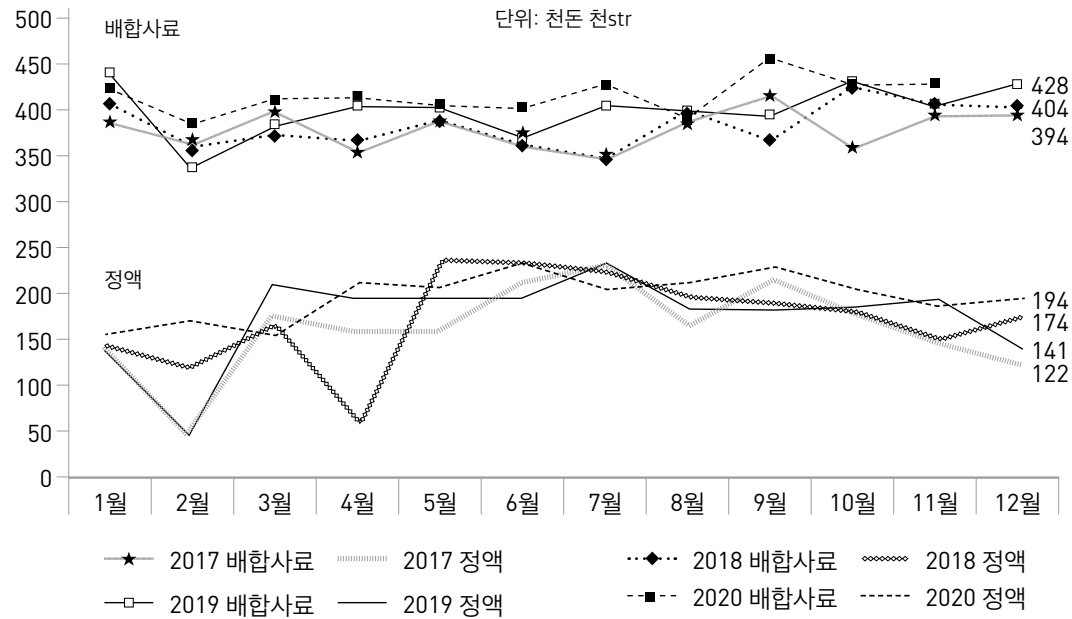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산지가격동향'

## 0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1년 1월 배합사료 생산량 및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1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37천톤으로 전년동기(426천톤) 대비 2.6% (11천톤)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한우 사육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1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72천str로 전년 동기(157천str) 대비 9.6%(15천str) 증가
- 이는 전년대비 가임암소 두수가 증가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

<그림 4>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사료	2017	388	363	398	355	389	373	349	389	416	358	395	4,566
	2018	407	358	374	368	389	364	348	401	366	428	407	4,616
	2019	439	341	383	403	403	365	404	397	392	430	406	4,791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5,050
	2021	437											437
정액	2017	141	47	176	158	160	211	229	170	214	180	148	1,956
	2018	134	119	166	55	237	233	223	195	189	179	151	2,054
	2019	138	48	207	196	195	196	231	183	183	185	192	2,095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2,359
	2021	172											172

주 1) 2019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정액판매가 중단(2.1~2.21) 됐으며,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불일치  
 자료 : 사료협회, 농협경제제주 한우개량사업소

## 05 쇠고기 수입현황

### 2021년 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0.3%(99톤) 증가

- ❖ 1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4천 6백톤으로 전년 동기간 3만 4천 5백톤에 비해 0.3%(99톤) 증가
  - 전년 동기간 대비 냉동쇠고기는 6.1%(1,585톤) 감소했으나 냉장쇠고기 수입물량이 큰 폭(20%, 1,684톤)으로 증가해 전체적으로 수입물량(99톤) 증가
- ❖ 1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등심과 앞다리, 양지 부위가 각각 19.4%(506톤), 8.9%(393톤), 6.8%(327톤) 증가한 반면 갈비 부위는 12%(1,616톤) 감소
- ❖ 1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미국에서 8.6%(1,620톤) 감소한 반면, 호주와 기타 국가에서 각각 10.1%(1,344톤), 15.2%(375톤) 증가
  - 기타 국가에서는 멕시코와 뉴질랜드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81% (556톤), 7.3%(94톤) 감소하였으나 캐나다로부터의 수입물량이 209.2%(979톤) 크게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0	1월(A)	34,527	26,088	8,439	13,414	4,837	4,417	2,606	9,253	18,731	13,332	2,464
	누계(B)	34,527	26,088	8,439	13,414	4,837	4,417	2,606	9,253	18,731	13,332	2,464
2021	1월(C)	34,626	24,503	10,123	11,798	5,164	4,810	3,112	9,742	17,111	14,676	2,839
	누계(D)	34,626	24,503	10,123	11,798	5,164	4,810	3,112	9,742	17,111	14,676	2,839
전년동월 비율	전년동월 (C/A)	0.3	△6.1	20.0	△12.0	6.8	8.9	19.4	5.3	△8.6	10.1	15.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축산물검사실적)



## 06 수급 전망

### 2021년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와 정액 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는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
  - 한우 사육두수 : 2021년 3월 두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3,149천두, 6월 3,319천두(2.9%↑), 9월 3,332천두 (2.9%↑), 12월 3,281천두(2.3%↑) 전망
  - 가임암소 : 2021년 3월 두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513천두, 6월 1,538천두 (3.4%↑), 9월 1,586천두 (2.8%↑), 12월 1,588천두(2.5%↑) 전망
  - 1세 미만 : 2021년 3월 두수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932천두, 6월 938천두(0.0%↑), 9월 948천두 (4.0%↑), 12월 952천두(1.1%↑) 전망

### 2021년 한우 도축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 전망

- 당분간 한우 도축은 사육두수 증가로 2020년 대비 증가 전망
  - 2021년 1월~ 3월 19만 5천두, 4~6월 19만 4천두, 7~9월 23만 2천두, 10~12월 22만 2천두 도축 전망
- 2021년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은 하락 전망
  - 2021년 1~3월 도매가격은 18,000~19,000원, 4~6월 17,000원~18,000원, 7~9월 17,500~18,500원, 10~12월 17,000~18,000원 형성 전망

# 한 우 사 육 1 0 0 문 1 0 0 답 —



한우의 개체 기록 관리와 활용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식을 바탕

으로 꾸준한 기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개체 기록을 위한 양식은 개체의 성장(비육), 번식(교배, 분만), 유전 능력, 출하 성적, 백신 기록 등 개체의 생애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좋으며, 이렇게 기록된 자료들은 현재 개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의 개체의 이상 징후 발현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해당 농가의 사양, 번식관리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며, 보유 축군의 특징을 파악하고 후대의 능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교배를 위한 정액 선택 및 농가의 개량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 관리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컴퓨터로 관리를 원할 때는 축사로 시스템(chuksaro.nias.go.kr)을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86) /

## 자가 TMR 제조 이용시 고려사항은?

농가에서 농식품부산물 등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료원료를 이용하여 조사료와 함께 자가에서 섬유질배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를 제조하여 한우에 급여하면 소의 반추위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발효 최적화로 소화율을 극대화시키며, 생산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가에서는 농식품부산물의 영양소 함량이나 한우의 성장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부산물 사료를 섞어 먹여 사료비 절감의 효과보다는 발육 부진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TMR 제조를 위해서는 배합기 등 장비구입이 필요하므로 자가배합 전환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사료를 직접 제조하여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므로 한우의 사양관리나 섬유질배합사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자가사료 제조를 위해서는 사료배합비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섬유질배합사료를 제조할 원료사료를 확보할 방안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단순히 유동되는 원료사료만 구입하여 혼합해 주어서는 오히려 사료비가 더 비싸질 수 있다.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원료를 구입해서 사료를 제조해야 사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농식품부산물의 종류가 많아야 하며 가격이 적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부산물 구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성분은 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자가 TMR 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농식품부산물의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보통 농식품 부산물의 수분이 많아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 있다. 현재 원료의 가격 기준으로 수분 60%정도인 부산물은 100원/kg 이내로, 수분 80%인 경우에는 60~70원/kg 정도로 사야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용이 가능한 원료를 이용하여 사료배합비



를 작성한 후 경제적으로 유리할 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 비육 중 비타민 A 급여 방법과 제한하는 이유는?

한우 고급육 생산에서 비타민A 제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 비타민A는 시각기능이나 생식 등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로서 생체의 발육을 유도하고 지방 전구세포가 근내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따라서 비타민A를 결핍시키면 근내 지방세포 분화가 촉진되어 고급육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분별한 비타민A 결핍은 체중 감소 및 근육수종, 요석증, 야맹증 특히 번식우의 경우에는 번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자가사료를 제조하는 많은 농가에서 비타민 조절 실패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거세우에 비타민A 결핍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필히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장 단계별로 비타민A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성장이 왕성한 육성기에는 비타민A를 충분히 급여하고 지방분화가 일어나는 비육전기에는 비타민 적정 급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 그리고 비육후기에는 다시 조금 올려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사료 및 공장형 TMR을 급여하는 경우에는 사료에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가 배합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우사양표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비타민이 조절되도록 배합비가 작성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 한우사양표준 프로그램을 이용 방법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접속 (<http://www.nisa.go.kr>) > 연구활동 >

농가활용 프로그램 > 8515번 한우사양표준 2019 프로그램(TMR 배합비 프로그램)

※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 한우 비육우 사료급여 시, 축사 내 미세먼지 농도변화



■ 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최기준

매일 아침 일어나서 TV를 켜면, 지역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알려 줄 정도로 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가깝게 다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PM10)란 크기를 기준으로  $10\mu\text{m}$  보다 작은 먼지를 말하는데, 특히  $2.5\mu\text{m}$  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는 동물이 호흡할 때 폐 깊숙이 침투하여 만성호흡성폐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호흡성 분진으로서 국민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177호, 2020. 3. 31)’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하는 미세먼지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정책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축산) 유래 미세먼지 관련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축산 현장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과도한 사회적 우려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우 사육시설에서 유래하는 분진 및 미세먼지 발생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는 2020년부터 개방식 비육한우 사육현장에서 배합사료와 조사료(건초)를 급여할 때 미세먼지측정장치(광산란분광법, Grimm Model 164)을

이용하여 축사 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한우 사육현장에서 분진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작업내용은 사료급여, 깔짚교체, 섬유질배합사료조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매일 2회 정도 사료급여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료급여 시 미세먼지의 농도변화가 보다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우사료는 크게 농후사료(배합사료)와 조사료로 구분되고, 특히 조사료는 수분함량이 낮은 건초를 급여할 때와 수분함량이 보다 많은 사일리지나 헤일리지(저수분사일리지)를 급여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가 다를 것이 예상된다.

본 현장조사 연구에서는 축사에서 30m 떨어진 곳의 바깥공기와 건초(수분함량 9.9%) 및 배합사료(수분함량 10.3%)를 급여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료 급여 후 10분 동안의 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배합사료는  $102\mu\text{g}/\text{m}^3$ 였으며, 건초는  $393\mu\text{g}/\text{m}^3$ 였고, 사료 급여 직후 높아졌다가 약 7분 후에는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미세먼지는 사료 급여 직후 잠시 높았다가 4분 후에 바깥

공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평균농도는 배합사료는  $20\mu\text{g}/\text{m}^3$  건초는  $34\mu\text{g}/\text{m}^3$ 로 보통수준( $35\mu\text{g}/\text{m}^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사일리지나 헤일리지보다 수분함량이 낮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건초 급여에서도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사료급여 후 몇 분간만 다소 높았다가 약 4분 후에는 바깥공기와 비슷한 수준의 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작업자와 국민건강에 보다 유해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농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한우 사육현장 유래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평가를 고려하다면 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우 사육현장에서 작업 진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더 많은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우 사육현장에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좀 더 줄이는 방안으로서는 조사료의 종류를 건초에서 사일리지나 헤일리지로의 전환 급여가 필요하고, 조사료 생산현장에서도 수분함량이 낮은 건초보다 수분함량이 40~50% 수준으로서 가축의 기호성이 좋은 헤일리지의 생산 확대를 기대해 본다.

# 우량송아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



■ 글 · 김용 부장  
(카길애그리퓨리나 전략마케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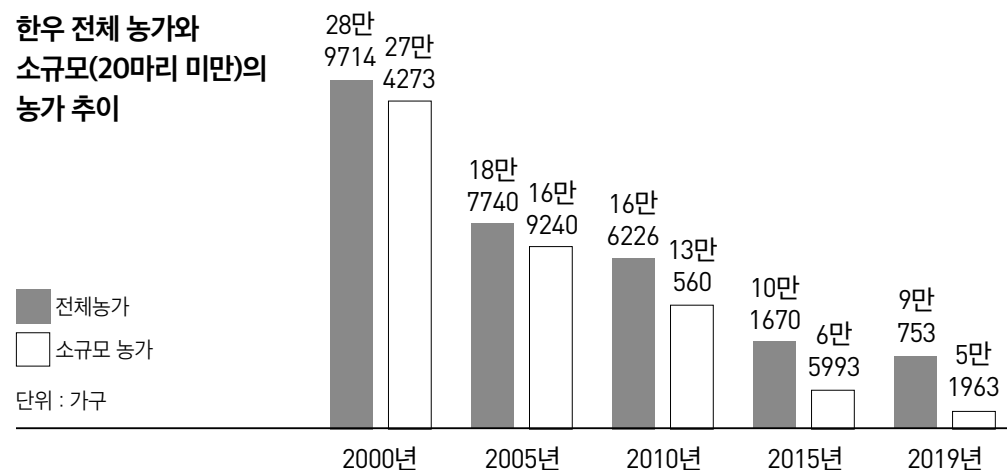
## 한우 농가의 규모화, 개미군단이 사라진다

2000년도의 한우 전체 농가 수는 28만9천 호였고, 그 중 27만4천호는 20두 미만의 소 규모 농장으로 집계되었다.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가 4두로 당시의 한우 농가의 규모가 얼마나 작았는지 짐작 할 수 있다. 20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전체 한우 농가의 숫자는 9만호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농가당 사육두수 20두 이하의 소규모 농장은 5만1천호로 1/5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전체 농가 수 감소대비

소규모 농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한민국 한우 산업은 빠른 속도로 규모화 되고 있으며 정부의 암소 감축 정책 이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한우 농가의 42%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고 후계자를 확보한 비율이 9.8%로, 규모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우 전체 농가와 소규모(20마리 미만)의 농가 추이



## 한우농가의 트렌드, 일관 경영

요즘 한우 산업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바로 일관 경영이다. 과거에는 소규모 농장이 번식을 전담하고 규모가 큰 농장이 비육을 담당하는 이른 바 분업의 시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농장에서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일관농장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 씽크탱크 업체인 GS&J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번식농가 중 62%의 농장이 앞으로 일관 경영으로 전환한다고 응답했고, 현재 일관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의 55%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일관농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예전처럼 번식만 하던 소규모 농장에서는 생산한 송아지 전부를 외부로 판매했지만, 일관 경영으로 비육을 시작하면서 최우량 송아지는 직접 사육 할 것이다. 실제로 일관농장에서 직접 사육한 거세우의 출하성적과 외부로 판매한 거세우의 출하성적을 비교한 아래 표를 보면, 유전능력이 좋은 송아지는 직접 사육하고 상대적으로 유전능력이 낮은 송아지는 외부 판매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우 비육농가에서는 좋은 송아지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지고, 우량 송아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육만 하던 농장도 일관 경영으로 구조를 전환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비육 농장도 규모를 늘릴 땐 송아지 생산을 위해 암소를 입식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 한우농가 일관경영에 관한 설문조사

단위 : %

구분	번식 농가	비육 농가	일관사육 농가
일관경영으로 전환할 (규모확대) 계획	42.9	18.2	47.6
여건이 되면 전환(확대)	19.0	4.5	7.1
전환(확대) 계획 없음	38.1	77.3	45.2

주 : 일관사육농가는 일관사육규모를 확대 할 계획에 대해 조사함  
자료 : CS&J

## 일관농가에서 직접 사육한 개체와 판매한 개체의 도축성적

구분	자체사육 (A)	외부판매 (B)	A-B
도체중(kg/두)	422.6	426.7	-4.1
도체가격지수(원/kg)	15,235	14,908	327

주 : 도체가격지수 = 등급별 도축두수 X 해당 등급 거세우 평균가격 / 총 도축두수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이력제 데이터, 농가설문조사  
출처 : CS&J



## 한우농가의 규모화와 일관경영, 그리고 상승하는 송아지 가격

규모화와 일관 경영, 이 두가지 트렌드는 최근 송아지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 최근 4년간 송아지 생산 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액 판매량, 인공수정 비율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봐도 앞으로 송아지 생산 두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동반 상승하는 송아지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두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시장 원리인데 왜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일관 경영이 늘어나면서 송아지를 외부 판매보다는 직접 사육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송아지 생산량의 약 10% 정도만이 우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축거래상을 통해 중계되거나 일관 사육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우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송아지를 비육하여 출하하는 일관 농장이 늘어나면서 비육 농가의 입장에서 좋은 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송아지가격이 비싸서, 필요한 수만큼 송아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비육 농장이 고충을 겪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유전능력이 좋은 송아지를 입식하는 게 어려워 지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 우량 송아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한우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출처: 축산유통정보센터

구분	2019년 송아지 거래		2020년 송아지 거래		전년 동기 대비	
	거래두수	평균가격	거래두수	평균가격	거래두수	평균가격
1월	11,954	3,501,223	11,231	3,777,831	(723)	276,608
2월	4,377	3,549,882	10,506	3,707,909	6,129	158,027
3월	10,769	3,541,713	600	4,030,537	(10,169)	488,824
4월	8,220	3,653,739	9,954	3,956,873	1,734	303,134
5월	7,820	3,843,212	10,346	4,141,916	2,526	298,704
6월	7,914	4,026,985	9,395	4,199,558	1,481	172,573
7월	8,793	3,982,981	9,349	4,243,584	556	260,603
8월	10,121	3,740,786	9,881	4,259,112	(240)	518,326
9월	9,652	3,859,325	12,605	4,261,256	2,953	401,931
10월	12,068	3,844,089	13,290	4,155,658	1,222	311,569
11월	14,656	3,815,022	14,766	4,140,333	110	325,311
12월	14,128	3,719,634	14,127	3,983,656	(1)	264,022
소계	120,472	3,756,549	126,050	4,074,644	5,578	318,095

## 개편되는 한우 등급판정제도와 초기 성장의 중요성

등급판정제도가 개편된 이후 1+이상 등급출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육질등급보다 도체중이 매출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최근 많은 한우 농가에서는 사육 개월을 단축하면서도 증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육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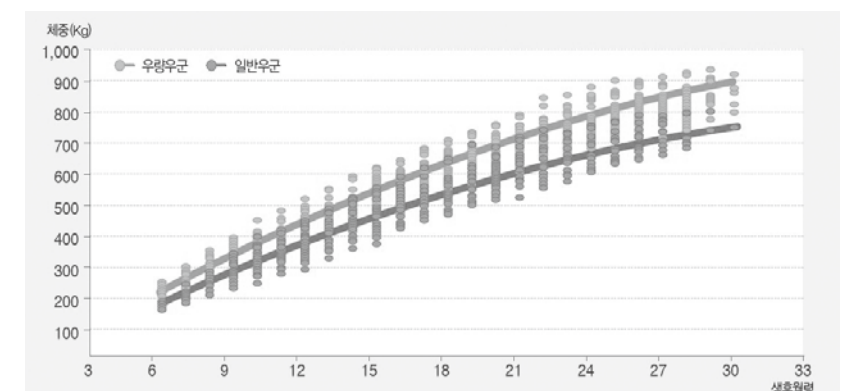
일본 화우 시장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 화우의 두당 총 생산비는 1천3백만원 정도이며 평균 매출액은 1천4백만원 정도로 한 마리 출하했을 때 수익은 약 1백만원 정도이다. 일본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전혀 높은 수준의 수익이 아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육 개월 단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해답을 초기성장에서 찾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수한 밀소는 우수한 출하성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퓨리나 H농장에서 실험한 아래의 자료를 보면 초기에 체중 50kg의 차이가 출하시기에는 100kg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송아지의 초기 성장은 한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시장에서 송아지 품질에 따른 가격 격차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를 판매하는 농장과 송아지를 구매하는 농장 모두, 우량 송아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다음편에서는 우량송아지의 기준과 사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농장 한우 105두 초기성장 출하체중 (2019)



#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 글 · 노무법인 이안 이아림 노무사

## 01 축산 농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조), 우리나라는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E-9(E-9-3)’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을 출신국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는 농·어업 업종(축산업은 농업에 포함)이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숙사시설표 및 관련 증빙자료’(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축산 농가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02 외국인 고용허가제 요건 및 절차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신규 계약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 1년 10개월이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총 4년 10개월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1)제조업, 2)건설업, 3)농업, 4)어업, 5)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서 축산업은 ‘농업’의 하위항목으로서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는 절차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1)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워크넷에 구인신청이 올라간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 필요서류

-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인터넷(www.eps.go.kr) 신청시 위 신청서는 필요 없음.
- ② 사업자등록증(농·축산업의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기숙사시설표\*(기숙사 미제공시 제출 필요 없음)  
※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필히 지참  
※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한 경우 각 사진도 지참/첨부  
※ 기숙사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 그 증명서류도 지참/첨부
- ④ 사업장시설 확인 증빙서류\*\*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⑥ 대표자 직접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직원) 방문시  
(1) 위임장,  
(2) 재직증명서,  
(3)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직계가족) 방문시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신분증

※그 외 뿌리기업 증명서가 있는 경우 우대사항이 있으므로 제출요망.(뿌리기업 임에도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사항 적용 없음.)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단 벼룩시장·교차로 등 일간지에 추가적 으로 구인광고 게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일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www.ep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축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숙사시설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후에는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점수 부여 결과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타 주의사항

필요서류를 모두 갖췄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근 2개월 중에 내국인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한 사실 등, 법령에 의한 미발급·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03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규정 (2019년 7월 16일 제정, 시행) 강화

### (1)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시행시기: 축산업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패널(샌드위치 패널) 또는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합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용허가를 불허합니다.

불허되는 민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신규·사업장변경)
- ② 재고용 연장(1년 10개월 연장)
- ③ 재입국 특례(성실근로자)
- ④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신청

## 기숙사시설표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 제2항 참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기숙사시설표를 증빙자료(사진·동영상 등, 농·어업 업종(축산업은 여기에 해당)에 한함, 다른 업종은 '21.7.1부터 적용)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에는 점수제 감점이 적용됩니다.

기숙사시설표에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농·어업 업종(축산업은 여기에 해당)에 한함, 다른 업종은 '21.7.1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숙사 시설이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기준을 확인하여 충족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정됩니다. 한편, 현장점검 결과 기숙사시설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이 적용되오니 허위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시설 확인 증빙서류 \*\* (시각자료)

사업장 시설 확인 자료로는 사업장 전경,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내용의 시각자료(사진·동영상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허가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 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 (시행시기: 2021년 2월

중 고시 개정하여 시행 예정)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기숙사로 인정하는데, 이미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기숙사로 제공중인 경우에도, 추후 기숙사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3)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사진·동영상 등) 제출 의무화 (시행시기: 축산업 20년 9월)

기숙사시설표와 더불어 시각자료(사진·동영상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EPS 사이트([www.eps.go.kr](http://www.eps.go.kr)) 로그인하여 직접 업로드도 가능

제출 대상 시각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거시설 외부 전경
- ②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
- ③ 화장실·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
- ④ 냉·난방시설
- ⑤ 채광 및 환기시설
- ⑥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모두 필요)
- ⑦ 수납공간

## (4)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 관리

기숙사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실제로는 부설기숙사(무허가 가설건 축물 등)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고용허가 취소 시, 취소일자로부터 15일 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해지하여야 합니다.

## (5) 우수기숙사 제공시 신규 외국인력 가점 상향 (시행시기: 2021

년 2월 신규 외국인력 접수시부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에서 우수기숙사 가점을 2.5→5 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 축산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기숙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규노동자를 배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 산정시 측정기준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문제없이 축산 농가를 운영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안 이아림 노무사

TEL. 02-6929-0805

mail. [arim.lee@ianhr.com](mailto:arim.lee@ianhr.com))





# 지회지부 소식

각 지회는 2021년 새 회장단 및 임원단을 꾸리고 중앙회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져 지역 상황에 따라 3월 중하순까지도 연기되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접수된 신규 회장단(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 접수 순)

※ 지회·지부 정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지부소개](#)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도지회 (061-434-1500)	
구 분	성 명
도지회장	신건호
부지회장	김재영
부지회장	임동권
부지회장	김옥범

부산경남도지회 (055-277-1931)	
구 분	성 명
도지회장	한기웅
부지회장	안은달
부지회장	이현태
부지회장	최두소
감사	김종원
감사	홍순홍
도이사	박완옥
도이사	김성찬
도이사	노우현

대구·경북도지회 (053-381-9237)	
구 분	성 명
도지회장	최종효
수석 부회장	우병국
부지회장	임동권
부회장	서교희
부회장	김길환
부회장	전인주
감 사	최원춘
감 사	김종상

제주도지회 (064-724-1053)	
구 분	성 명
도지회장	고기정
부회장	김문혁
부회장	고성민
부회장	박창석
부회장	고행곤

## 전북도지회

### 완주군에 불고기 100kg 기탁

지난 2월 9일 전북 도지회(회장 정운섭)가 완주군에 한우불고기를 기탁,



410만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100kg를 기탁하는 이웃 사랑을 전했다. 정운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한우 농가와 관련 업체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함께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나눔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지회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전달

대구 경북지회는 (회장 최종효) 지난 3월 2일 경북도청에서 범도민 이웃



사랑 행복나눔 캠페인 성금 1천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우협회의 사랑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축산단체의 도내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세종시지부

### 한우로 이웃사랑 나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는 2월 9일, 전국한우 협회 세종



시지부(부지부장 장형순)가 37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 104kg를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된 한우선물세트는 조치원읍·연서면·연동면·부강면·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 104가정에게 전달됐다.

## 장수군지부

### 사랑의 한우 나눔 실천

장수군지부(지부장 채수권)는 지난 2월 4일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



을 위한 불고기용 한우(1kg) 98팩(시가 400만 원 상당)을 전북 장수군에 기탁했다. 채수권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순창군지부

### 한우로 이웃사랑 나눔

순창군지부는(지부장 이양훈) 지난 2월 9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한우 117kg



(48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순창군지부는 매년 2회 이상 관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소고기를 기탁하고 있다.

## 화순군지부

### 화순군지부(지부장 임봉택) 한우 19상자 후원

화순군지부(지부장 임봉택)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우 19상자(114kg)



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는 한우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산청군지부

소규모 농가에 송아지 나눔

산청군지부는 지난 3월 8일 산청군 축산청정센터에서 송아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산청군지부는 한우 번식 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3~4두씩 협회 회원 농가를 상대로 송아지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지부에서 분양한 송아지 3두는 오부면, 금서면, 신안면의 한우농가에 1마리씩 전달됐다.

박광열 지부장은 “송아지 분양 행사가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에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산청지역 한우 번식 기반 조성 확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거창군, 한우협회 임원 초청 한우산업 발전 간담회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과 전국한우협회 거창군지부(지부장 손정운)는 지속 가능한 거창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손정운 지부장은 축사 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별 축산퇴비 공동처리시설 설치, 축사 허가 절차 간소화, 뽕짚 환원 사업, 자가TMR 사료 배합기 지원확대 등 그동안 수렴해 온 회원들의 의견을 건의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에 대해 축사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해 업무처리를 표준화할 것과 함께, 권역별 공동퇴비사 건립은 공모사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뽕짚 환원 사업은 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경축 순환농업으로 전환, 올해 200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MR 자가 사료배합기는 적정규모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한우자조금



##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 한우농가 경쟁력 키웠다

한우자조금이 한우농가 생산성 제고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한우농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의 사양관리 및 출하 성적이 컨설팅전보다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은 전반적으로 △번식률 △번식간격 △송아지폐사율(%) △1+ 이상 등급출현율 △출하월령(개월) 등 컨설팅이 이루어진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기관별로 살펴보면 농협경제지주 컨설팅 참여농가의 평균 컨설팅 전후 성적에서 제 1권역(강원·경기·충북)은 C등급의 비율이 종전 2018년 34.3%에서 2020년도 10.4%로 감소하였으며 근내지방도가 4.9에서 6.0으로 상승하였다. 제 2권역(충남·전북·전남)은 등지방두께가 14.3에서 12.7로 개선되었으며, 종전 31.1개월에서 30.5개월령으로 단축되었다. 제 3권역(경북·경남·제주)은 송아지 폐사율이 6.7%에서 3.4%로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공태일수는 131.5일에서 91.9일로 39.6일이 줄어 크게 개선되었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컨설팅 참여농가는 평균 컨설팅 전후 성적에서 1++이상 등급출현율이 19.2%에서 30.7%로 11.5% 증가하였고, 등심단면적은 종전 92.2에서 93.5로 증가하였다. 특히 번식간격이 12.8개월로 1.1개월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전국한우협회 컨설팅 참여농가는 평균 컨설팅 전후 출하성적에서 등심단면적은 94.7에서 98.0로 증가하였고 번식간격은 13.6개월에서 12.7개월로 단축됐다. 번식우 평균 성적에서는 번식간격이 12.7개월로 0.9개월 단축, 송아지 폐사율과 공태일수에서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업계 소식

### 송아지 설사병 분만사 청결 유지와 정기소독으로 예방

송아지 설사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기생충(원충) 감염이다. 이로 인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실제 농가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송아지 설사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농장 303곳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설사병을 일으키는 작은와포자충과 람블편모충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은와포자충은 조사 농가의 23.8%(72/303)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며, 1~3주령 송아지에서 대부분(92%) 발생했다. 발생 시기는 송아지 생산이 많은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나타났다.

람블편모충은 조사 농가의 25.4%(77/303)에서 발생했으며, 5주령까지의 송아지에서 71%, 6~11주령 송아지에서 24% 수준으로 검출됐다. 봄부터 감염률이 늘어 여름까지 높게 유지됐다.

각 원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송아지 분변이 묽은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은 단독 감염됐고, 복합 감염된 경우에는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와 함께 감염된 사례가 많았다.

원충성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위생관리와 기본에 충실한 송아지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분만사를 청결하게 해주고, 송아지 육성사를 정기적으로 비위 소독하며 들쥐의 접근을 막아줘야 한다. 분변과 오염된 깔짚은 자주 제거해준다. 증기 열을 이용한 세척(steam-cleaning)과 과산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 사용을 권장한다.



환기용 팬을 이용해 축사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밀집 사육을 자제한다.

농촌진흥청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한우 송아지는 1년 중 봄철에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송아지 분만 시기부터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수의사 이한경 씨는(전라북도 김제시) “송아지 설사병은 치료 가능하지만, 한번 걸리면 송아지 성장을 늦추는 부작용이 따른다. 예방이 최선이란 생각으로 봄철 위생 관리에 신경 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우성사료

### 코로나19 극복 지원 성금 기탁

(재)우성사료문화재단(이사장 정보연)이 지난 2월 5일 TJB대전방송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우성사료는 지역사회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2009년 (재)우성사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누적 기부 금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등 창업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

사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 주된 기업활동이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 하며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에 우성사료 임직원들도 함께 형편이 어려운 축산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밥 퍼주기, 연탄 나르기, 재해 지역 복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성사료는 지난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태희)가 주관하는 나눔 명문기업 대전 2호, 적십자 아너스클럽 대전세종 6호로 가입되어 기업의 나눔 실천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성사료 한재규 대표이사가(왼쪽) TJB대전방송 이광축 사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코로나19극복 기원을 다짐하고 있다.



밥퍼주기 봉사



빵만들기 봉사

대한뉴팜(주)

송아지 생균복합제 초유99 출시

대한뉴팜(주)가 가축 질병예방 보조사로 제품인 '초유99'를 신규 출시했다.

'초유99'는 고순도 초유 및 송아지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균 복합제이다. 당사는 IgA(면역글로불린-A)와 IgG(면역글로불린-G) 등이 다량 함유된 최고급 미국산 초유 유동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초유99' 제품을 출시했다. '초유99'는 99.8% 순도 제품으로, 초유 급여 효과를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초유 급여는 신생 송아지의 질병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로 알려져 있다. 송아지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한 면역물질은 초유로만 공급이 가능하며, 24시간 이내 급여가 필수적이다. 체중의 6% 이상의 충분한 초유를 공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어미소는 분비량이 충분하지 않다. 그로 인해 냉동 초유 또는 초유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급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향후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과의 협업 및 공동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며 상생의 길을 추진하는 건강한 기업이 되어 축산 및 관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팜스코

팜스코 1차 캠페인 실시

(주)팜스코(대표이사 정학상)가 3월~6월, New Start, 2021 팜스코 1차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회의는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줌(Zoom: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노경탁 사료사업본부장은 사료업계의 리더로서 가치 판매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돈, 축우, 양계 전 축종에 걸쳐 신제품을 출시하고 농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민기 축우PM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생산비를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출하체중 900kg, No.9 출현율 30%의 초격차 생산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리미엄 마블사료 '맥스나인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더불어, 출하 생산성을 점수화하여 농장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툴인 팜스코어(FarmScore)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케어사이드

유영국대표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

(주)케어사이드 유영국대표가 제 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세무서로부터 성남세무서장상을 수상했다.

(주)케어사이드는 '열린경영, 자율경영, 윤리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삼아, 2002년에 창립하였으며, 2011년 성남에 KVGMP 공장을 준공한 후, 2020년 매출 418억을 달성하는 종합동물약품회사로 성장한 회사이다.

또한 (주)케어사이드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동물에게 주는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차세대약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꾸준히 R&D혁신을 꾀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복합성장률 40%대의 성장을 이뤄내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동물 질병 예방(백신)의 기획-설계-개발-시험-평가-양산의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동물 질병 예방(백신) 플랫폼 기술”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영국 대표이사는 “세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의무이다.” 라고 강조하고, 이어 “우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을 이뤄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23회 장학금 전달식' 비대면 개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44명에 1억 6백만원 전달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박용순,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이 23일, '2021 비대면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 44명에게 총 1억 6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29회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용순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향후 축산분야를 이끌어갈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14명, 대학원생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사회공헌 미션인 청소년 교육 및 인재양성, 풍요로운 세상 만들기 실천을 통해 소중한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1993년부터 올해까지 1,000여명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용순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내 축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축산의 주역들이 한국 축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를 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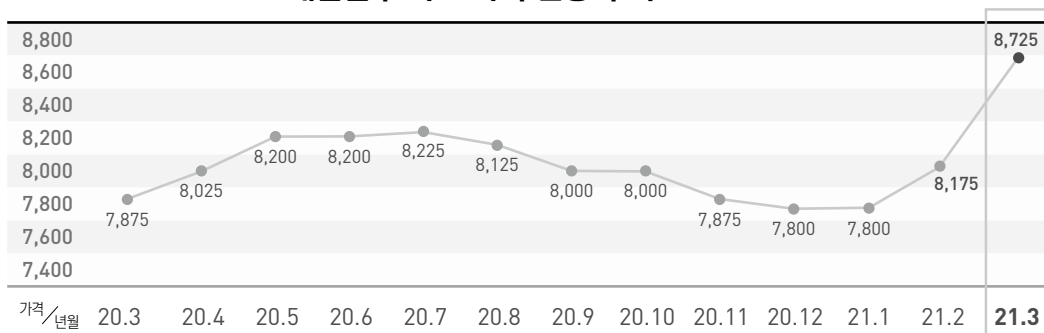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21년 **3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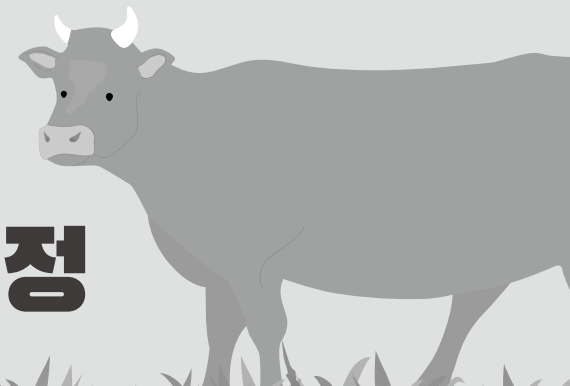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 3월 24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기간 종료 예정



###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

축사면적 규모	부숙도 적용기준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부숙중기

### 퇴비 부숙도 검사 주기

배출시설 면적 규모	검사주기
허가규모(900㎡ 이상)	연간 2회(6개월 주기·3년 보관)
신고규모(100㎡ 이상)	연간 1회(12개월 주기·3년 보관)

### 퇴비 부숙도 판정 기준

구분	콤백(CoMMe-100)	솔비타(Solvita)
미부숙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1
부숙초기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2
부숙중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3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4~6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7~8

###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및 부숙도 검사 주기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퇴비 부숙도 부적합	허가규모	100	150	200
	신고규모	50	70	100
성분측정 검사주기 위반	허가규모	50	70	100
	신고규모	30	50	70
퇴·액비 관리대장기록 (3년 보관)		50	70	100

### 육안으로 퇴비 부숙도 확인 방법

기준	부숙 초기	부숙 중기	부숙 완료
수분함량	70% 이상: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많이 나옴	60% 전후: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약간 나옴	50% 전후: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스미지 않음
형태	원료의 형태유지	상당히 붕괴	형태를 알 수 없음
색깔	축분과 유사한 색깔 및 형상	축분과 퇴비의 중간 색깔 및 형상 → 중간 색깔·형상 ←	갈색 또는 흑색을 띠고 축분 형상 완전 소멸
냄새	아주 강한 축분 냄새	축분 냄새를 알 수 있는 정도	축분 냄새 완전 소멸 및 흙냄새 등 퇴비 냄새



#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